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28.92 (-3.86)	737.90 (-6.06)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541 (-0.025)	1460.70 (-2.70)

metro® 경제

주택수요 회복에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
02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개장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관련기사 13면> /손진영기자 son@

내수침체 영향 본격화 되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영업실적 부진에 신용등급 하락
단기자금 부담 해소 선제적 대응
MBK "경영정상화 협력 다할 것"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힌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뉴시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게 홈플러스측 설명이다. 내수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한신평 신용등급별 정의에 따르면, A3은 '적기상환의 가능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

다. +, -는 동일 등급 기준 내 우열을 나타낸다.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하락 배경으로 ▲영업실적 부진 장기화 ▲과중한 재무 부담 지속 ▲중·단기 내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기업평가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과 소비 트렌드 변화,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홈플러스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품군 강화 및 점포 리뉴얼을 통해 매출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고정비 부담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의 매출액은 지난 2022년 6조 4807억원, 2023년 6조 6006억원, 2024년 6조 931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35억원, -2602억원, -1994억

원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에 2024년도 실적 개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은 462%로 전년 대비 1506%p 개선됐으며, 지난해 12개월 매출액 역시 7조 462억원으로 2.8% 성장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2024년 회계년도 실적이 그전보다 개선이 됐는데, 갑작스레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다"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운전 자금을 쌓아두고 쓰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규모를 줄이거나 기준을 변동하면 현금수지에도 변동이 올 수 있어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 불황 먹구름 짙어진다

통계청, 1월 산업 활동동향
산업생산 5년래 최대폭 줄어

국내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산업생산, 소매판매(소비), 투자 등의 3대 지표가 모두 후퇴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이래로 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첫 달의 전(준)산업생산은 전월 대비로 2.7% 줄어 들었다. 감소 폭이 지난 2020년 2월(-3.2%) 이후 4년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건설업과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일제히 감소했다.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줄었다. 기타운송장비(2.8%)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 조립장비 등 기계장비(-7.7%)와 OLED 등 전자부품(-8.1%)에서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8.0%)과 달리 뒷걸음질했다. 반도체 생산의 경우, 0.1% 늘어났으나 지난해 10월(+4.7%), 11월(+3.5%), 12월(+3.5%) 등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2.4%)와 수출(-10.3%)에서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월대비 6.2% 감소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도소매(-4.0%), 운수·창고(-3.8%) 등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0.8%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4.3% 줄며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긴 설 명절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대부분의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생산뿐만 아니라 1월 소비(소매 판매)와 투자도 전달에 비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설 연휴가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안 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는 0.6% 줄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에서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조선·에너지·관세·비관세 등 美 행정부와 5개 협의체 구성"

안덕근 산업장관, 訪美 성과 발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곧 실무자를 추가 파견해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6일~28일 워싱턴D.C.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방미 최대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협의체를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조선·에너지·알래스카개발·관세·비관세 등 5개 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조선협력 협의체와 관련 "이번에 가서 만든 실무협약체는 기본적으로 국장급으로 구축됐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 국방부,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될거라고 알려졌고, 미국은 백악관 내 조선관련 TF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협력에 있어서 러트

닉 상무부 장관이 협의체 끌고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상무부가 끌고 나갈 거 같다"며 "우리 카운터파트가 누구일지는 협의해가면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주라도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실무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미측도 우리 조선업계 발주가 몇년씩 돼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지만 조선협의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니 까저쪽에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조선 협력 협의체 외에도 알래스카 공동 개발, 에너지 협력, 관세·비관세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가동키로 했다.

안 장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서 나오는 관세 조치는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발표 이후 협의해서 예외를 만들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만들고 트럼프 정권 내내 긴밀히 소통하는 채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 ▲ 공수처 "검찰 압수수색으로 영장의혹 해소... 수사기록은 검찰에" /사진 뉴시스
-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안에 "옳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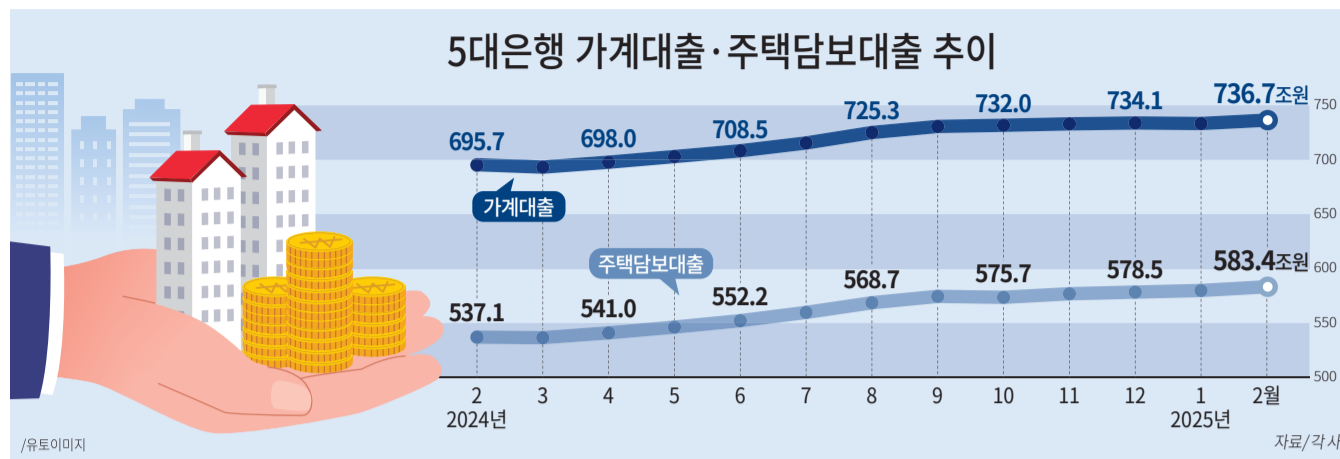
- ▲ 민주 제주도당 "탄핵정국 JDC 이사장 임명은 알박기 인사"
- ▲ 김두관 "이재명 대표, 개헌 논의 적극 참여해야"

- ▲ 진성준 "윤석열도 추진한 상법 개정 국힘이 반대...尹 무시하냐"
- ▲ 경찰 "尹탄핵심판 선고일, 필요하면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가계대출 다시 증가... 주택수요 회복에 주담대 3.4조 '깡충'

5대은행 가계부채 잔액 736.7조 주담대 중심... 전달 대비 3조 늘어 신용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줄어 "금리 내리고 3단계 DSR 도입 전 수요 확대 예상... 모니터링 강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3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 수요 등 대출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이 더해지며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대출을 조여야 하지만 대출 수요는 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부채 잔액은 736조75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해 3조931억원



늘었다. 지난 1월 가계대출은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감소 전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583조3606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3835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폭(1조5136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9589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493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억눌렸던 부동산 수요가 대출로 이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8월 이후 은행들은 폭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금리를 인상했다. 올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초기화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져 주택구매부터 밀렸던 이

사 수요까지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서울 강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점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22% 올랐다. 지난 1월(0.1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1%→0.76%)와 서초구(0.08%→0.61%)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를 중심으로 매매가

격이 오르며 대출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월·분기별 대출 공급을 제한해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대출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주기형 상품을 0.2%p, 변동형 상품을 0.3%p 인하한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부채를 관리했는데, 올해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22% 올랐다. 지난 1월(0.1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1%→0.76%)와 서초구(0.08%→0.61%)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를 중심으로 매매가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투심 위축 '암호화폐 급락'

비트코인 가격 하루만에 9.30% ↓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비축" 발언 특정 암호화폐 보유자 혜택 지적도 이더리움, 6개월 만에 최저가 기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비축 선언으로 급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우려에 투자 심리가 얼어 붙으면서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비축 발언이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암호화폐 시장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BTC당 8만4111달러(1억2280만원)에 거래됐다. 하루 전보다 9.30% 급락했다. 같은 시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도 전일보다 약 840만원(6.15%) 내린 1BTC당 1억2680만원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것은 트럼

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오는 4일부터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관세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에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트럼프의 암호화폐 비축 발언이 특정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상승했던 가격을 되돌리는 이유다.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SNS를 통해 "암호화폐 비축은 지난 수년간의 바

이든 정권 동안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내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 그룹에 가상 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전략 비축 대상으로는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를 지목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BTC)과 2위인 이더리움(ETH)도 비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비축 선언 직후 2시간 만에 솔라나는 26.6%, 리플은 32.2%, 카르다노는 72.3%의 상승을 기록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11%, 14.6% 올랐다.

특정 암호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비축 발언이 특정 알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승했던 암호화폐 가격도 곧이어 하락 전환했다.

4일 기준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는

트럼프의 발언 직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낙관론자인 샘슨 모우 JAN3 대표이사는 "(특정 암호화폐를 직접 언급했다)도 트럼프가 비축 화폐를 직접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비축에 앞서)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미국이 금융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지시한다고 해서 곧 그것이 실행될 것인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러한 언급은 특정 알트코인이 비축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로비스트들을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닉 퍼크린 코인 뷰로 창립자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단기적인 상승을 유도한 요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건설현장 2.2만 곳 연말까지 집중점검

국토부, 부실시공 방지 일환 실시

정부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연말까지다.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 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과태료와 부실벌점이 각각 156건, 162건이며, 시정명령 등도 내려졌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지난달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美, 캐나다·멕시코에 25% 신규관세 발효

중국산 제품 10% 추가관세도 부과 내달 2일 '상호관세' 예정대로 시행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드디어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해온대로 트럼프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대한 25%의 신규 관세를 발효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도 4일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 역시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새롭게 예고했다. 국가나 품목을 가리지 않고 관세폭탄을 떨어뜨리는 형국이다.

특히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신규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한국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입장에서 면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3일 오후 서명했다.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멕

시코에 진출한 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에게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400여개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25% 관세 발효 직전,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부과할 것이며, 21일 이내에 1250억 캐나다 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홈플러스만의 문제 아니다”... 유통업계 전반 위기감 고조

중국 e커머스 필두로 경쟁 심화
경기침체 장기화... 어려움 가중
“생존 위해 각고의 노력 필요”

경기침체가 유통업계 전반의 실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업계 역시 경기침체와 소비 트렌드 변화,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익률은 0.9%에 불과했으며, 이마트 역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익률이 0.7%에 그쳤다.

과거 ‘유통업계 르네상스’라 불리던 백화점 업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해 롯데백화점 매출은 3조 2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061억원으로 19.9% 줄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055억원으로 7.8% 감소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1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급감했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 요인 중 하나로 통상임금 증가를 꼽았

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방 점포의 매출 부진과 수도권 주요 점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은 강남, 여의도, 판교 등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 창출원이 한정적인 상황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라고 지적했다.

국내 e커머스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G마켓은 지난해 순 매출 9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감소했으며 674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11번가 역시 지난해 754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업계 불황으로 경기 침체와 맞물린 ‘시장 분화’를 꼽는다.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 다른 업종이 융합되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고객층이 저가 소비 채널을 중심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략 본격화도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떠올랐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의 알리익스프레스 결제 금액은 3조 6897억원, 테무 결제 금액은 600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12만 4000명, 테무는 823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빠르게 국내 저가형 소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유통업계 주변 위기 요소가 많은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내수만으로는 위기를 타파하기 어려운데, 중국발 커머스들까지 들어오면서 시장 점유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뉴시스

성급한 회생절차... ‘대주주 책임회피’ 논란

마트 등 모든 사업 정상운영 계획
업계 “업황 쉽지 않아... 지켜봐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사업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포 축소나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납품 대금 미지급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회생절차를 낸 것에 대해 대주주의 책임 회피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이후 상황은?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사업성과 경쟁력 등 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통해 조기에 경영 안정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

고,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경영을 이어간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황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될 예정이다. 임직원 급여 역시 정상 지급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금융 부채는 약 2조 원으로 알려졌다. 잔여 계약 기간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임대 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금액이다. 홈플러스 측은 4조 7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금융 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포 축소·구조조정 가능성은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사업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와의 거래도 지속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축소나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점포 축소나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혀 없다”라며 “이번 회생절차는 금융채권 상황에 대한 유예 조치일 뿐, 협력업체 대금과 직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영업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좋지 않다.

홈플러스에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금융 부채 이자 상황 등에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하기도 전에 회생절차를 먼저 신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부채의 이자 상황이나 대금 지급 기간을 동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차입으로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면서 홈플러스의 재무 부담이 커졌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납품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면, 결국 그들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납품업체들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융권, 홈플러스 익스포저 1.4조 이상 추정 (대출·지급보증 등 위험노출액)

KB국민은행 최다... 546.7억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금융권의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등 위험노출액)가 1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2일 현재 전체 금융권의 홈플러스 총 익스포저는 1조 4461억5000만원에 이른다.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546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288억8000만원)·우리은행(270억원) 순이다. 3개 은행의 익스포저가 1105억 5000만원 규모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관련 대출 등이 없는 상태다.

전체 금융권에선 메리츠증권의 익스포저 규모가 655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2807억7000만원이다.

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작년 5

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 금융 3사에 담보로 제공했고, 해당 신탁계약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메리츠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로 제공돼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해 1순위 수익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시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고도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860억원), 서울보증보험(219억4000만원)도 보증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홈플러스발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신하은 기자 godhe@

구광모의 LG, 인도에서 답 찾는다... “새로운 30년 향해 도약”



LG 인도 진출 30년 맞아 현장행보
구광모 회장, 밸류체인 경쟁력 점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인도를 찾아 '제 2의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했다. 구 회장의 인도 방문은 올해 LG의 인도 진출 30년을 맞아 글로벌 현장경영 강화 일환으로 진행됐다. LG전자는 '인도 국민브랜드'로 쐐기를 박은 만큼 30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배터리, 화학, 에너지 분야에서도 신규 공장 설립 등을 통해 폭발적인 시장 성장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 구 회장 “새로운 30년 도약”

4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인도를 방문해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와 수도 뉴델리를 찾아 R&D·생산 등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과 만났다.

구 회장은 “인도 시장에서 차별화를 통해 경쟁 기업들을 앞서 가려면 앞으로의 몇 년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이 지속가능한 1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그간 쌓아온 고객에 대한 이해와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새로운 30년을 위한 도약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구 회장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시장이 아닌 이머징 마켓인 인도를 찾은 것은 글로벌 지경학적 변화 속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에서 시장주도자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도는 인구수 약 14억5000만명으로 세계 1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5위



구광모 LG그룹 회장(앞줄 가운데)이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에서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인 경제 대국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25세 미만이 약 40%에 달하는 젊은 국가로 향후 20년간 주력 소비계층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G전자는 인도 가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으로 각각 3조 7910억원, 3318억원을 기록했다. 인도서 매출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43%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구 회장은 가장 먼저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방문해 인도 시장의 변화 상황과 생산 전략 방향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냉장고 등 가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 지속가능한 1등이 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 LG전자, 30조 가전 시장 공략

LG는 지난 1996년 소프트웨어연구소 설립하며 인도 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같은해 LG화학을 시작으로 1997년 LG전자, 2023년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가 속속 진출했다.

특히 LG전자는 기술력과 현지화를 통해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다. 텡

인도시장 지위 굳히기 의지 반영
현지화로 30조 가전시장 선점 전략
석유화학 공략도... 신규공장 가동
이차전지는 초기단계... 전략 구체화

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고려해 초음파로 모기를 쫓아내는 에어컨을 선보였고, 전력이 끊겨도 7시간 냉기를 유지하는 냉장고를 출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가전제품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시장은 LG전자 인도법인의 기업가치를 150억달러(약 21조원) 수준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LG전자의 코스피시가총액 13조48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LG전자는 인도 시장을 지속 공략해 30조원의 가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9년 110억 달러(약 15조8000억원) 규모였던 인도 가전 시장이 올해 210억 달러(약 30조 16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현재 수도권인 노이다와 중서부 푸네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인도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에서 에어컨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동남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지역에 새로운 생산시설 설립을 검토해 산업 발전 주요 거점 3개 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화학·배터리 “신규 공장으로 돌파구”

LG는 가전뿐 아니라 배터리, 화학, 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와 시장개척을 이어간다. LG화학은 올해 신규 공장을 가동하며 고성장 중인 인도 석유화학 시장의 주도권 공략에 나선다.

LG화학은 과거 인도서 발생한 화재 사고 관련 부담을 공장 증설과 피해자 관련 재단 설립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지난 2020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州) 비사카파트남에 있는 LG플러미스 공장서 발생한 사고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초기 단계인 인도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인도에 배터리 관련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하는 등 미래 성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인도특허청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70개가 넘는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LG엔솔 관계자는 “지난 2023년 2월

인도법인을 설립했으며 인도시장의 경우 전기 이륜차 시장의 큰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현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는 현지 인력도 지속 개발하고 있다. LG 소프트 인디아 법인이 운영 중인 연구소는 LG그룹의 글로벌 연구소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현지 개발자 2000여명이 웹(web)OS 플랫폼,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인도 IT 산업은 GDP의 7%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인도의 SW 개발자 풀(Pool)은 500만 명 규모로, 매년 100만 명의 공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구 회장은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 인도 소프트웨어 연구소도 찾았다. 구 회장은 인도 소프트웨어 연구소 연구원들을 만나 “SW 기술 혁신에 대응하고 우수 R&D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미래 SW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R&D 지향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꼭 달성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초빙 공고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상임이사를 초빙합니다.

1. 공모 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 상임이사(1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임기 만료 후 1년 단위 연임가능)

2. 자격요건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탁월한 소통능력을 갖춘 자
- 존경과 신뢰 기반의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신청기간

- 2025년 3월 5일(수) ~ 2025년 3월 13일(목), 18:00
- * e-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4. 기타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내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민주당 '경제 살리기' 부각... 세계개편·AI·경제 광폭 행보

상속세·근로소득세, 상법 개정안 국내생산 촉진 세제 등 잇따라 제안 K-엔비디아 기업에 조세부담 경감 추, SK그룹 등 경제계 인사 만나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조세·금융 관련 정책 제안을 연속해 내놓으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부각해 중원(중도층)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상법 개정안 추진,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등을 잇따라 제안했다. 상속세 개편은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해 총 18억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민주당은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추진 세금·금융·AI 정책	
상속세 개편	현행 :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민주당 : 상속세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 상속공제 10억원
근로소득세 개편	현행 :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 직장인 식대 비과세 20만원. 민주당 :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8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30만원.
상법 개정안 추진	현행 :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민주당 : 상법 제382조3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국내생산촉진세제	현행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기업 설비투자 금액 일부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공제 민주당 : 국가전략사업으로 국내 최종 제조 제품,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10년간 부여
K-엔비디아	AI 관련 기업에 국민펀드나 국부펀드가 공동투자해 조세부담 경감

18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이 속한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경제계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현행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국내 최종 제조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10년간 부여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AI(인공지능) 분야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영상에서 대답을 나누던 중,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투자해 지분을 확보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싱크탱크)장 등이 정부와 기업을 한 몸으로 생각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나"라며 "국유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참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행정가의 이미지를 쌓아왔고 '중도보수'를 선언한 만큼, 만년 야당 대표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경제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석 현대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일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과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에서 만나 청년의 사회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중산층에 유리한 금융·세금 정책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융·조세 정책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해 정책화하는 것인데, 최근 정당의 행동을 보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보고 유권자의 표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최대행, '마은혁 임명' 침묵... 국정협의회 대신 여야협의회 열린다

국무회의서도 임명 결정 안 해 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영향

민주당 "헌법 무시하는 최대행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공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지 않았다.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최 권한대행이 빠진 여야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같은 날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국정협의회 참여 촉구와 국민연금 합의, 의대생 휴학 사태 등 현안만 언급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의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려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해, 임명 문제는 성급히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이같은 조언을 건넨 것은 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의 강한 반발과 국정 전반에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즉시 임명할 시 여당의 반발도 극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과 25일 각각 현재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숙고가 깊어지는 요인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한 총리의 선고 및 복귀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탄핵심

판 선고도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변론이 끝난 가운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현재는 이같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여권의 '헌재 흔들기'는 더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마 후보자를 임명한 후, 추가 변론기일을 몇차례 잡은 후 선고를 한다고 가정해도 문제다. 이 경우 '9인 체제'의 현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5(인용):3(기각)'로 기각될 것을 마은혁 임명으로 6:3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먼저

임명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단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질적 민생 개혁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협의회를 신속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이재용 만나 청년 사회진출 지원방안 논의

오는 20일 '사피 아카데미'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 회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

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SK 'AI서밋 2024' 방문,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등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만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토론 주제로 잡혀있지 않지만, 논의 소재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미국發 통상전쟁 대응... '통합의 힘' 절실"

최대행, 국정협의회 재가동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발 통상전쟁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요청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

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LOTTERIA™

감자연구소 못난이 치즈감자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로 재탄생한
대만 야시장 스타일 감자 디저트



← 진하고 고소한 체다크림치즈소스!

* 상기 이미지와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기부터 택시까지... 미니보험, 대중교통 보장 확대

교보라플, 서울시-티머니와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선배
대중교통 장려, 안전까지 보장

KB라이프 '대중교통안심보험'
항공기, 기차 등 사망·장해 보장

미니보험이 최근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보장 상품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존 생활 속 작은 사고나 특정 활동(운동, 레저 등)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포괄하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월 서울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케어(무)라플365미니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서울시, ㈜티머니가 손잡고 출시한 미니보험이다. 보험료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신규 가입자 또는 충전 완료 사용자 대상으로 (주)티머니에서 전액 부담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요 보험사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대중교통 미니보험 이미지.

보장 내용은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치아 파절 제외) 진단비 10만원 ▲갑상(부목 제외) 치료비 10만원 ▲강력 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 최대 2000만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해당 상품은 특히 대중 교통 이용 장려 정책과 맞물려 시민 안전까지 고려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케어 미니보험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에 시범적으로 우선

제공하고 추후 검토를 통해 실물 카드, 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이번 '기후동행케어(무)라플365미니보험'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티머니와 함께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B라이프생명 측은 지난달 21일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재해 장해를 보장하는 'KB 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 무배당'을 내놨다.

해당 상품은 항공기, 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최대 3년 동안 보장한다. 보험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대중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500만원을 대중교통 재해 장해급여금으로 보장한다. 또한 'KB 지켜주는 교통안심보험 무배당(2형)'을 가입하면 일반 차량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19세부터 64세까지로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남성 1200원, 여성 500원)를 단 한 번만 납부하면 최대 3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고객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니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쏟모임 체크카드 출시
100팀에 5만원 캐시백

신한카드가 편리한 모임 관리를 위한 '쏟모임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상품은 신한 쓸뱅크 앱에서 모임을 개설하면 발급할 수 있다. 기존 입출금 계좌 연동도 가능하다. '포인트 플랜 카드'에 모임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적용했다.

국내외 결제 시 건당 최대 1%를 마 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한다. 행사와 모임이 몰리는 5월과 12월은 적립 한도를 5000포인트 추가로 지급한다. 연회비는 무료다. 오는 31일까지 출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100팀에게 5만원을 캐시백한다. 대상은 ▲요식업 ▲스포츠용품 ▲해외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해 쏘모임 체크카드로 결제한 고객이다.

NH농협카드

등록금 무이자 할부 등
신학기 응원행사 준비

NH농협카드는 신학기를 응원 행사를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교육비 자동 납부 등록 및 1회 이상 납부 시 GS25 5000원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추가로 선착순 100명에게 최대 5만원을 캐시백한다.

대학 등록금 할부 혜택도 마련했다. 연말까지 대학등록금 5만원 이상 납부 시, 최대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이어 ▲지방세 ▲전자상거래 ▲의류 ▲병원·약국 등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KB국민카드

창립 기념일 기념행사
취약계층 후원금 마련

KB국민카드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위드드림(WE:SH DREAM)'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성취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이달 걷기기부 플랫폼 '빅워크'를 활용해 걸음을 기부한다. 목표 기부 걸음 수 1억보를 달성하면, 소원성취 후원금을 조성한다.

후원금은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사용한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555명에게 선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유리 기자 yul115@

/김정산 기자 kimsan119@

이달 2.5만 가구 '봄 분양 기지개'... 옥석가리기 본격화

수도권 1.9만가구 지방 6000가구
'고양더샵포레나' 2601세대 주목
경기 불확실성 속 건설사 신중모드

3월 분양 예정 아파트가 2만488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487세대)의 16배 물량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 청약 등 제외)은 26개 단지, 총 2만4880 가구에 조사됐다. 전월(5385가구)과 비교해도 362%나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596세대, 지방은 6284세대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4416세대 ▲인천 4180세대가 예정돼 있다. 서울은 분양 예정 사업장이 없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대규모 브랜드 단지가 눈길을 끈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들어서는 '고양더샵포레나' 2601세대가 나온다. 용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투시도.

/대우건설

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1804세대가 분양예정이다.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재의왕고천' 900세대,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10블록' 1420세대 등도 분양준비 중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7단지 1453세대와 부평구 산곡동 '산곡구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75세대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 2638세대 ▲부산 1667세대 ▲경북 999세대 ▲강원 508

세대 ▲대구 472세대 순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 2638세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1단지' 999세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텔타시티아테라' 1025세대 등이 이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3월은 전통적으로 '봄 분양' 시즌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분양 성공여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매입 정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을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는 위축된 상태로 건설사 역시 신중한 분양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 회복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랩장은 "분양가 경쟁력이 있거나 입지가 우수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신중하게 활용하며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단지별 청약 성적의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하나銀, 개인사업자 '가맹점 적금' 출시 '화담숲에서 걸어봄' 참석 고객 모집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더소호가맹점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이다.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더소호가맹점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

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이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카드사 개수에 따라 최고 연 4.0%이다.

또한,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 시점의 기본 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사유리 기자

신한은행 계좌 5대연금 수령 고객

신한은행이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진행되는 '화담숲에서 걸어봄' 행사에 참석 고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봄'은 시니어 관광 명소인 화담숲과 신한은행이 주최하는 걷기 페스티벌이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4월 14일 전관 행사로 진행하며, 모집대상은 5대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 연금 수령 고객뿐만 아니라 31일까지 연금 수급계좌를 전환 또는 신규 지정한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 SOI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3000명(1인 2매)에게 입장권을 제공한다.

/사유리 기자 yul115@

대한항공 창립 56주년 ‘보딩데이’ 행사

조원태 “‘KE 웨이’로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 도약”

(한진그룹 회장)

글로벌 항공사 성장방향 제시
‘수송보국’ 바탕 전세계 연결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 될 것”

“올해 본격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기업 가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KE 웨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의 구심점이자, 대한항공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창립 56주년 행사 ‘보딩데이’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기업 가치 체계 ‘KE 웨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서의 도약을 다짐한 것이다.

이날 대한항공은 기업의 존재이유를 비롯해 새로운 비전, 미션 등을 담은 ‘KE 웨이’를 공식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타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보딩데이’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홀 미팅도 진행했다. 그는 지난 56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비전 등 회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임직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대한항공은 최상위 개념인 존재이유를 ‘Connecting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결)’로 명명했다. 한진그룹의 창립 이념인 ‘수송보국(輸

送報國)’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 전세계를 연결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다.

비전과 미션은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새 비전은 “To be the world’s most loved airline(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이다.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객 만

족 달성을 통해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 및 운영 ▲고객과 동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전 세계 활발한 교류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해 구성했다.

조 회장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소통에 기반을 둔 임직원 중심의 점진적 융합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문화 융합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으며, 양사 직원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공개를 앞둔 신규 CI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 도약하는 시작점에 서있는 만큼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고객과 임직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새로운 브랜드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신규 CI를 선공개하고, 추후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점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 유니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EU 자동차산업 ‘액션 플랜’ 발표 임박 K-배터리, 보조금 지급기준 선제 대응

유럽 내 생산 계획·전략 영향
“배터리 업체들 긍정적 기회”

유럽연합(EU)이 최근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데 이어 유럽 자동차 산업 관련 ‘액션 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와 지급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계획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오는 5일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럽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배터리 업체는 유럽 액션 플랜

의 보조금 지원 방향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유럽 내 배터리 공장 생산능력(CAPA)은 약 220GWh(기가와트시)다. 이는 전기차 대수 기준으로 약 320만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지난해 기준 유럽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300만대 수준이었으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약 35%로 집계됐다. 3사는 현재 유럽 내 공장에서의 생산능력에 훨씬 못미치는 약 100만대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액션 플랜이 유럽 내에서 조달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표될 경우 유럽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 주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휴 생산능력 활용이 확대되면서

가동률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유럽 공장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한국의 수혜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현재 유럽 시장 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40%에 달하며 한국 전기차 판매량이 유의미한 성장세를 갖지 않는 한 업계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정책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중국 기업들의 유럽 내 생산 확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며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장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발표 이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송호성 기아 사장 “전기차 대중화 주력”

주주서한 통해 향후 계획 공유
총주주환원율 30→35% 상향

송호성 기아 사장(사진)은 “이제 EV 대중화, PBV,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사장은 4일 주주서한을 통해 “지난 5년간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제품 부가가치 증가율과 수익성을 기록했다”며 전기차(EV) 대중화 전략을 올해 과제로 꼽았다.

송 사장은 “지난해 EV3를 시작으로 EV4, EV5, EV2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해 대중화 모델 풀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EV2에서 EV5에 이르는 대중화 모델 풀라인업은 내연기관 차량과 총소유비용(TCO) 측면에서 대등한 수준을 확보해 EV 대중화를 본격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BV(목적기반차량)와 픽업트럭 출시로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는 계획이다. 송 사장은 “차세대 PBV 사업은 장기적인 준비 끝에 2025, 드디어 첫 기아 PBV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맞춤형 차량 제작사업인 특수차량 사업에서 축적한 40년 이상의 오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맞춤형 모빌리티 경험을 입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사장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밸류업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총주주환원율(TSR)을 30%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5~2027년까지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 사장은 “주주는 기업의 장기 성장과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며 “기업 가치 상승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K하이닉스, 美 매출 33.5조… 2.6배 ‘썩썩’

HBM 주효… 순이익 1000억 돌파

SK하이닉스의 2024년 미국 시장 매출이 2.6배 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확대로 AI용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4일 SK하이닉스 공시에 따르면 미국 판매법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S

K hynix America Inc.)는 2024년 매출 33조4859억원, 순이익 1049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매출(12조5419억원) 대비 약 2.6배(166.8%) 증가한 규모다.

미국 판매법인 등 현지에서 올린 매출은 SK하이닉스 연간 매출액(66조193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3년과 2024년 사이 반도체 업황이 상승 추세로 전환

한 것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DR5 등 빅테크발 AI 메모리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힘입어 SK하이닉스는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올해 HBM 물량을 ‘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5세대 HBM인 ‘HBM3E 12단’ 제품에 주력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HBM3E 16단, 하반기에는 ‘커스텀(맞춤형)’ 제품인 6세대 HBM4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구남영 기자 koongja_1ea@

현대차그룹, 솔라스틱 등 사내 스타트업 분사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 스타트업 4곳이 분사해 독립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유망 사내 스타트업 ‘솔라스틱’, ‘ROAI’, ‘HVS’, ‘플렉스온’ 등 4곳을 분사시켰다고 4일 밝혔다.

스타트업 4곳은 ▲플라스틱 패키징을 활용해 가볍고 디자인이 자유로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솔라스틱’ ▲로봇 자율제어 기술을 통해 제조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하는 ‘ROAI’ ▲습

기 및 부식을 방지하는 소재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HVS’ ▲친환경 휠 밸런스 웨이트 및 배터리 방폭 패드의 소재를 제조하는 ‘플렉스온’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0년 사내 스타트업 육성 제도 ‘벤처플라자’를 시작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제로원 컴퍼니 빌더(ZERO1NE COMPANY BUILDER)’라는 이름으로 현대차그룹 임직원 대상 사내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중소기업 2題

성실경영인 실패 후 재기때 창업 인정, 정부지원 받는다

중기부,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성실경영평가로 분식회계·고의부도 등 확인

사업체를 성실하게 경영했다 실패한 기업이 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정부가 법적으로 경과기간 없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 폐업은 2년)내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하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화재 사후피해 구제 강화 전통시장 공제가입 확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1일 시행 오영주 장관 "삶의 터전, 안전환경 조성"

불이 나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에 대한 사후 피해 구제를 더욱 강화한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을 위한 지원 절차 등을 법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점포가 일시 전소돼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후 피해 구제를 더욱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로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운영해 화재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생업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공제상품이다. 건물, 시설 및 집기, 재고 자산 등이 대상이며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가입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견사 40% "상반기 수출실적 줄어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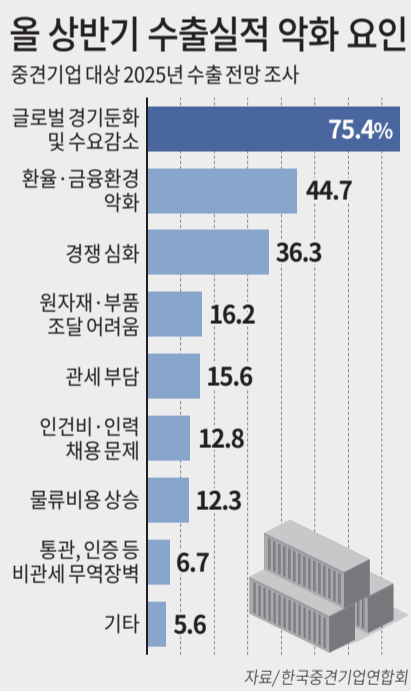
중견사, 61% 실적증가 예상 했지만 증가폭 5% 미만 응답이 31% 달해 감소 이유 74% '글로벌 경기 둔화'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 환율 등 금융 환경 악화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일 발표한 '2025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견기업의 38.7%는 전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반기 수출 실적 증가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61.3%였다. 그러나 증가폭이 '5%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이 31.4%에 달했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75.4%) ▲환율 및 금융 환경 악화(44.7%) ▲경쟁 심화(36.3%)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어려움(16.2%)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 범위로는 23.8%가 '1375원 이상 140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수출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도 수출국 다변화(47.5%), 품질 향상 및 가격 조정(37.4%), 내수 비중 증대(34.6%) 등 성

장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장의 필요에 맞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에서 중견기업들은 미국(수출 비중 51.9%), 중국(44.4%), 일본(28.8%), 베트남(27.9%) 등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현지 및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51.7%), '수입 규제 및 무역장벽'(34.8%), '통관·계약 등 법·행정적 문제'(17.5%), '현지 유통 및 물류 불안정'(15.6%) 등의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모든 업종에서 '무역·수출 금융 지원 확대'(54.5%)가 첫 손에 꼽혔다. 이외에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관세 인하'(37.0%), '수출 바우처 및 해외 마케팅 지원'(33.5%) 등도 거론됐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수출 의지를 한층 북돋우기 위해서는 무역수출 금융 지원 강화, 수입 관세 인하 등은 물론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애로를 폭넓게 수렴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시몬스 부스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시몬스

시몬스, 서울리빙페어에서 13억 매출 올려

5일간 누적 방문객 4만명 달해 '그로서리 스토어' 부스 큰 화제

시몬스가 지난 2월 26일부터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리빙 디자인페어'에 참여해 브랜드 차별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특히 시몬스 침대는 행사기간 매트리스 등을 판매해 총 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행사기간 다녀간 누적 방문객수는 약 4만명에 달했다.

4일 시몬스에 따르면 올해 리빙페어에서 '뷰티레스트(Beautyrest)' 출시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부스를 마련했다.

'아름다운 휴식'을 뜻하는 뷰티레스트 매트리스 컬렉션은 지난 1925년에 탄생했다. 같은 해 시몬스는 세계 최초로 포켓스프링 제조기계 특허 취득과 함께 대량 생산을 통한 침대 보급화를 실현하며 전 세계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한 바 있다.

코엑스 A홀 중심부에 위치한 시몬스의 65평 규모의 부스에서는 국내 제조 생산 최초 포스코산 경강선에 바나듐(VANADIUM) 소재를 적용한 '뷰티레스트 신제품'과 시몬스의 멀티 브랜드이자 하이엔드 비건 매트리스 'N32'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부스 정중앙에 설치한 '롤링 테스트기' 앞에는 인증샷을 남기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최대 140kg 무게의 육각 원통형 롤러를 분당 15회의 속도로 10만 번 이상 구르며 매트리스 원단의 훼손, 스프링의 휘어짐 및 끊어짐 등을 관찰하는 이 장비는 국가 공인 기준보다 까다로운 시몬스만의 엄격한 테스트를 엿볼 수 있다.

행사기간 시몬스가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증정한 뷰티레스트 100주년 기념 한정판 '리유저블백'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리빙페어에서는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의 F&B 브랜드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부스가 큰 화제를 모았다.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부스는 한 척의 배를 연상케 하는 피싱 클럽 콘셉트로 꾸며져 올해 리빙페어에서 가장 주목받은 디자인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선보인 공간에 수여하는 '눈에 띄는 공간상'을 수상했다.

시몬스는 지난 2022년과 2024년에도 '눈에 띄는 공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몬스 관계자는 "시몬스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안전 인증 등을 통해 국내 침대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지역 특화제품 발굴·판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영홈쇼핑이 전국 16개 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에 나선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별 육성산업, 특산물, 지역대표식품 등 각 지역에 특화된 제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부터 진행한 지

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총 72개 상품이 소비자와 만나 3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총 30개 제품을 선정해 판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상품기획자(MD)와 품질관리(QA) 담당을 배정해 초기 단계부터 상품화 코칭을 진행한다. TV 홈쇼핑을 통한 판매지원과 함께 350만 원의 홈쇼핑 영상 제작비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전국 16개 경제진흥원의 평가를 거쳐 1차 서류심사, 2차 품평회로 최종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있는 16개 경제진흥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영홈쇼핑, 16개 경제진흥원 누리집, 판관대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김영진 정책지원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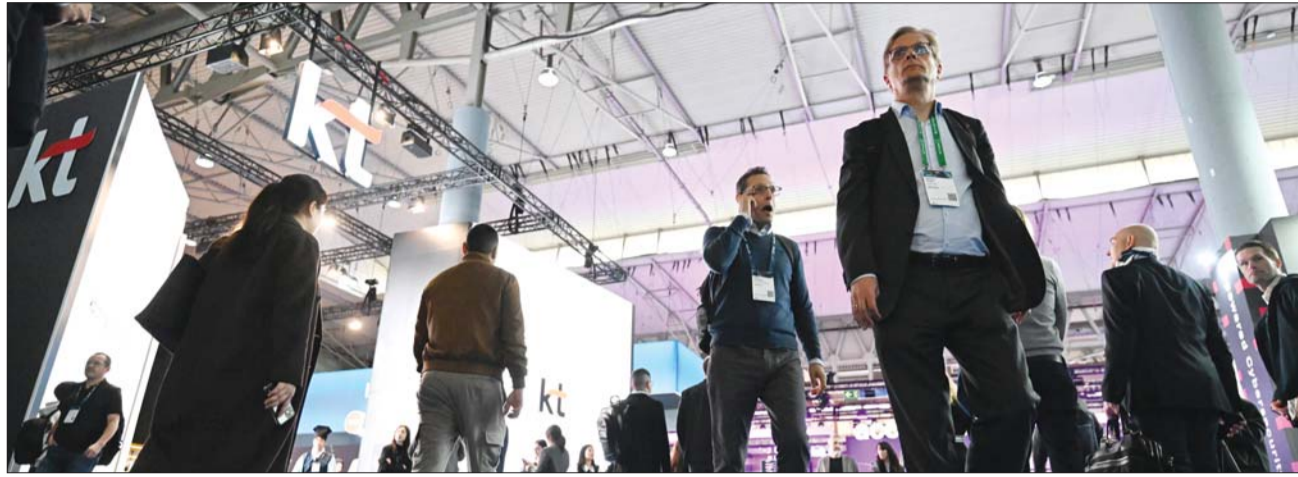
정부·기업 'MWC25' 총출동

SKT 'AI 피라미드 2.0' KT '인프라 운영' LGU+ 'AX기술'

SKT AI DC부터 AI B2C 성공 도모
KT GPU 클라우드사업 추진
LGU+ 자체개발 AI 익시 공개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MWC25가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했다. 이동통신 사업에서 양자, 인공지능(AI) 사업으로 무게추를 옮긴 통신3사는 수백 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마련하고 미래 사업 비전으로 낙점한 최첨단 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MWC25 개막 하루 전 발표한 미래 AI 기술 수익화 전략인 'AI 피라미드 2.0'과 발맞춰 통신사발(發) AI 혁신을 소개했다. AI 피라미드 2.0 전략은 1단계 AI DC, 2층 AI B2B, 3층 AI B2C로 구성된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AI 피라미드 2.0 전략의 첫 걸음은 AI DC 분야다. SK텔레콤은 AI DC 분야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수익화를 시작한 후 궁극적으로 AI B2C 사업의 성공까지 도모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 개막을 맞은 3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이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공동취재단

할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기존 통신업의 논리와 지식을 학습한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 신규 서비스는 물론 고객 관리·마케팅 등 영역에도 활용하는 모습을 구체화했다. 특히 ▲고객지원 AI 컨택센터(AICC) ▲챗봇이 구현된 버추얼 에이전트 등 텔코 LLM를 기반으로 여러 적용 사례 등을 전시했다.

또,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AI 데이터센터(AIDC) 관

련 주요 기술들도 전시했다. 차세대 데이터센터 열관리 방식으로 평가 받은 '액체 냉각'을 포함해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 AI DC 보안 기술 등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KT는 GPU 클라우드사업(GPUaaS)을 추진하는 만큼, AI 인프라 운영을 위한 최첨단 기술 선보였다. 이번 MWC에서 선보인 AI 에이전트 'GPU 할당 에이전트'는 AI 서비스 개발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업이 가진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전체적인 AI 학습 또는 운영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관리자가 직접 GPU를 관리하는 것 보다 효율을 2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 측은 "최근 전 세계적인 AX(AI 전환) 수요 증가로 GPU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익시(ixi)를 공개하고 AI를 비롯해 내재화한 다양한 기술을 산업계로 확산할 수 있는 AX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익시존을 별도로 마련하고 ▲U+서비스에 AI 기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기술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ixi-APIs' ▲비개발자도 챗봇과 같은 AI 서비스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인 'ixi-Studio' ▲개발자를 위한 코드 분석 솔루션 'ixi-Jihye' 등을 전시했다.

또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AICC'와 '비전 AI'도 전시했다. LG유플러스의 AICC는 고객센터 운영 노하우와 기존 인터넷프로토콜 컨택센터(IPCC) 1위 사업자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 AI 기술과 텍스트 AI 기술을 결합,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고 상담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전 AI 기술은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거나 주요 장면을 분석하는 등 산업현장이나 콘텐츠 제작에 활용돼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韓 정부, 차세대 통신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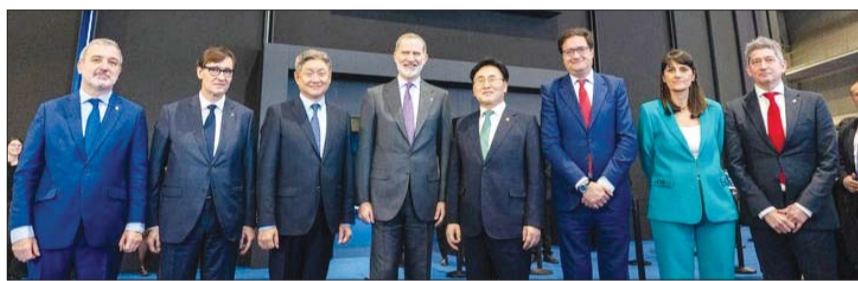
과기부-GSMA, 현장서 업무협약
5G-A, 6G, AI 연결망 응용 협력
방통위, AI 대전환 통신기술 미래 논의

우리 정부가 차세대 통신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MWC(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5'에서 동문서주하며 힘쓰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 현장에서 비벡 바드리나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차세대 통신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 네트워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별도의 면담 시간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GSMA와 과기정통부 간에 진화된 5세대 이동통신(5G-A), 6세대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의 연결망 응용 등 차세대 통신분야의 양자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5G의 선도적 경험과 6G 추진에 관한 정책 및 정보를 공유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MWC를 방문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접견했다. 왼쪽부터 바르셀로나 시장, 카탈루냐 주지사, 주스페인한국대사, 스페인 국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스페인 디지털전환공공기능부 장관, 디지털화인공지능차관 등. /과기정통부

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러한 정보를 최신 추진 전략에 반영하고 한국의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어 유 장관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접견하고 대한민국과 스페인 양국 간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활발한 협력을 제안했다. 국왕은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인 크쥐슈토프 가브로브스키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AI 정책과 법, 디지털 정책 공유 등을 논의했다.

방통통신위원회도 MWC25에 참가해 국가간 방통통신 협력 확대에 일조했다. 방통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3일부터 MWC25에 참가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첫날에는 국내의 주요 기업 부스를 참관하고 4일에는 GSMA 마츠 그란리드 현직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만나 AI 대전환과 관련된 통신 기술 미래에 대해 논의한 뒤 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시회 주요 부스를 돌아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 체험존 마련

크라프트 '다크앤다커 모바일' 체험

삼성디스플레이가 크라프트와 함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우수한 화질로 신작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박람회 'MWC 25'에서 부스 내 게임 체험존 '더 위닝 엣지'를 마련했다.

체험존에서는 크라프트가 올레드 상반기 글로벌 출시 예정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갤럭시 Z 폴드6'로 경험해 볼 수 있다.

크라프트의 이 신작 게임은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탐험과 전투의 공간인 던전에서 몬스터와 싸우며 탈출하는 익스트렉션 RPG(역할수행 게임)이다. 지난해 8월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4'에서 개막 3일 만에 시연 참가자 수 1만명을 달성할 만큼 전 세계 게이머들의 기대를 모으고



삼성디스플레이 'MWC25' 전시부스. /구남영 기자 koogija_lee@

있는 화제작이다.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강점은 빠른 응답속도와 리얼블랙 화질을 갖췄다는 점이다. 또 명암을 더욱 세밀하게 나타내는 이미지 표현 기술인 HDR(High Dynamic Range)와 색의 농도 차이를 풍부하게 보여주는 저계조 표현력이 우수하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어두운 던전 속 몬스터의 움직임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는 등 최적의 모바일 게임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lee@

SKB, 소상공인 위한 특별 프로모션

'힘내CEO' 진행... 통신비 절감

SK브로드밴드가 오는 8월 말까지 비용 절감과 매장 운영에 도움주는 소상공인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 '힘내CEO(힘내세요)'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통신비를 알뜰하게 절약할 수 있다. 기가라이트 와이파이(최대 500Mb

ps)를 1년 약정으로 선택시 기존 1년 약정 요금인 월 5만1700원 대비 통신비가 최대 40% 절감되는 월 3만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3년 약정 요금인 월 3만4100원과 비교해도 저렴하다. 1년 약정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요즘가족결합 할인과 더드림성공패키지 할인과도 중복 적용된다. 모뎀 임대료(월 2200원)와 인터넷 설치비(3만

6300원/인터넷 단독시)도 전액 무료다.

SK브로드밴드는 오는 5월 말까지 인터넷과 소상공인 전용 솔루션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선착순 고객에 한해 웰컴키트도 제공한다.

POS세트(카드결제기), 키오스크, 테이블로봇, 서빙로봇, CCTV, 결제안심, 소상공인 IP공유서비스 등 7종의 솔루션 중 1종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웰컴키트는 ▲이더넷센터(C to LAN 센터) ▲WiFi 안내판 ▲스마트 터치펜 ▲케이블홀더 등 매장에 필요한 상품들로 알차게 담았다. /김서현 기자

크몽, 기업 맞춤형 외주 서비스 론칭

크몽비즈, 품질보장 정책 특징

국내 최대 프리랜서 플랫폼 후면 클라우드 크몽이 기업 고객을 위한 맞춤형 외주 서비스 '크몽 Biz'를 론칭했다고 4일 밝혔다.

크몽비즈는 기업 고객이 외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다. 가장 큰 특징은 품질보장 정책으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최대 100%까지 환불을 보장해 품질에 대한 기업 부담을 크게 낮췄다. 외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기업이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품질 편차 문제를 최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크몽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50만 개 서비스 중 법인 거래 경험이 있는 700여개 서비스를 엄선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가 98% 이상인 전문가들을 우선 선정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NXT, 투자자에 새로운 기회… 자본시장 밸류업에 최선”

넥스트레이드 개장

김학수 대표 “첫 복수 거래시장 주문·거래체결 등 새로운 도전 테스트 통해 시스템 안정성 확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시장의 새로운 100년 혁신 시작”

“시장의 요청에 맞춰 기민하고도 보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학수넥스트레이드(NXT)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금투센터)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NXT 개장식 환영사에서 “투자자에게 더 좋은 투자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거래 체결을 지원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왼쪽부터),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윤창현 코스콤 대표 이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및 NXT 시장 참여 증권사 대표 등 200여 명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복수 거래 시장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하기에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간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안

정성을 확인했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XT 출범의 의미에 대해선 “복수 시장에서의 주문, 거래체결,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은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주는 모두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오늘 NXT의 모습은 작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훌륭한 나무로 성장해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숲을 더 번창하게 이뤄갈 것”이라며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NXT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구상하고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는 원활한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소도 통합 시장 관리자로서 복수 거래소 시장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오늘 출범하는 NXT 시장 역시 주식시장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증권업계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NXT 출범은 주식시장,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측면에서 밸류업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NXT 출범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밸류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공정거래 감시 체계 강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XT는 2022년 11월 설립 후 2023년 7월 예비인가, 지난 2월 본인가를 취득한 데 이어 이날 첫 거래를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 ATS 제도 도입 후 12년 만에 복수 주식거래 시장 시대를 열었다.

투자자는 별도의 앱에 접속할 필요 없이 참여 증권사 앱을 통해 수수료 등을 비교한 후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주문 전송시스템(SOR)이 적용되며, 증권사가 가격·비용·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배분하게 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급등락 코인시장… 관련 ETF 영향은 제한적

美 트럼프 ‘가상자산 비축’ 발언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코인 급락

MSTY 1.59% ↓, 상대적 안정적 “환율 등 고려, 코인 ETF 신중해야”



홍콩 비트코인 ATM 옆에 전시돼있는 비트코인. /뉴시스

투자자들의 시선이 오는 7일(현지시간) 열리는 백악관 ‘가상자산 정상회의’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회의서 구체적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얼마나 비축할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0.19% 하락한 8만34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1만 달러 이상 급락한 셈이다. 이더리움은 필두로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 컸다. 이더리움은 15.05% 하락한 208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을 발표하기 전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하루 만에 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동안, 관련 ETF들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해당 ETF들이 기업

주가와 연결되어 있거나, 옵션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코인이 급등했지만 ‘YieldMax MSTR Option Income Strategy ETF(MSTY)’는 1.59% 하락하는 데 그쳤다. MSTR ETF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에 연동되는 상품으로, 본질적으로 기업 주식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과 1:1로 연동되지 않는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와 연동된 ‘YieldMax COIN Option Income Strategy ETF’도 4.13% 하락했다. 이는 비트코인 및 이더

리움의 10% 이상 하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코인 베이스 ETF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코인 ETF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란 것도 성급한 일반화할 수 있다”며 “결국 해외 ETF이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코인 관련 ETF에 투자한다고 해도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ETF도 하락을 피하기는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이 지난 급등장 이후 급락했던 경험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7일 열리는 백악관 ‘가상자산 정상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디지털 자산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백악관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증권사 디지털 전환에 연간 3583억 지출

금융 취약계층 보완책 마련 절실

증권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는 MTS 등 신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개발비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358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전산 시스템 운영, 고객 정보 보호,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산 운용비로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한 9697억원을 지출했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증권사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MTS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개발비로 176억원을 투자, 2023년(1억7851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전산 운용비로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377억원을 지출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개발비와 전산 운용비는 각각 전년 대비 28.5%, 12.1% 증

가한 190억원, 897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도 개발비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484억원을, 전산 운용비로 9.9% 늘어난 1055억원을 투자했다.

증권사들은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영업점 수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은 750곳으로 전년(816곳) 대비 약 8% 감소했다. 2019년 1026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27%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상위 5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는 점포 수를 2023년 말 313곳에서 지난해 말 290곳으로 감축했다.

증권사 노조 관계자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객들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계좌 개설 및 업무 처리를 하면서 지점 방문이 크게 줄었다”며 “이에 따라 지방 점포를 중심으로 거점 도시 외 지점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공모펀드 출시

삼성운용, 국내 첫 휴머노이드 테마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테마 펀드인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공모펀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피지컬AI의 대표 분야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업 판매를 시작하자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해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펀드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로봇 관련 중국 기



업의 투자 비중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운용한다. 이 펀드에는 현재 중국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으로 ▲유비테크 ▲로보센스 ▲샤오미 등이 담겨 있다. 물론, 또한 최근에 많이 하락한 미국 로봇 관련 기업들도 꾸준히 편입 비중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서울보증보험, 공모가 2만6000원 확정

국내외서 총 1509곳 기관투자자 참여

서울보증보험은 공모가를 희망 범위 하단인 2만6000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수요예측에는 국내 1421곳, 해외 88곳 등 총 1509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신청주식 수량은 9억2465만주로, 이에 따른 최

종 경쟁률은 240.8대 1로 집계됐다.

확정공모가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총 공모금액은 약 1815억원이다. 의무보유 확약 건은 136건(참여주식수 기준 16.3%)이다. 6개월 및 3개월 장기 확약 건은 전체 확약 건 가운데 54%였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인

698만2160주를 매출하는 이번 서울보증보험의 공모는 구주매출 100%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상장 이후에도 경영효율화 및 시장친화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5~6일 일반 청약 진행한 뒤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았다.

/원관희 기자

해외 석·박사 취득 쉬워진다

국내 대학 학위, 36개국 인정

‘고등교육 글로벌 협약’ 비준 완료
이달 중 유네스코사무국에 기탁
협약국가 간 고등교육 학위 인정
해외인재·유학생 유치촉진 기대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해외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학위 상호 인정’ 협약 국가가 확대된다. 해외 대학에서 학사를 마친 뒤 국내 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위한 학위 인정도 마찬가지로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해외 유학생 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하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이달 중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나라 간 학생 이동 장벽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돼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됐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글로벌 협약에 참여하는 비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니카라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루마니아, 튀니지, 크로아티아, 교황청,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영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팔레스타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일본, 카보베르데, 아이슬란드, 안도라, 호주, 우루과이, 핀란드, 예멘, 기니, 헝가리, 몰도바공화국, 세네갈, 조지아, 룩셈부르크, 에콰도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산마리노, 지부티 등이다.

글로벌 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 간에는 고등교육 학위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외국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기 쉬워지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2017년 이미 비준한 ‘고

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하다. 이번 협약으로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가 아·태지역을 넘어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학위가 국제 통용성이 확장되는 만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이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약 비준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보다 촉진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등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학위정보센터 및 국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약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metroseoul.co.kr



서울시는 4일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구역 내 고척로변에 디자인 특화 주동을 계획하고, 열린 배치구간으로 바람길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연이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오류동 4번지 일대 ‘신통기획’

5.6만㎡ 부지에 1250세대 조성
매봉산 자락 둘러싸인 장점 살려

서울시가 저밀의 용도지역, 급경사 등 제약으로 개발에서 소외되던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를 ‘자연이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서울시는 4일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5만5977.8㎡ 부지에 25층 내외, 약 1250세대 규모 주거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번 기획안은 ▲매봉산 자락과 지역을 잇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 구성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경관 특화단지 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교통 체계 마련 ▲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살기좋은 단지 조성 등 4가지 계획 원칙을 담고 있다.

먼저, 매봉산과 온수근린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조성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지형의 단차로 인해 주요 접근로인 고척로에서 진출입이 불편했던 대상지의 도로 체계도 본격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약 35m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

설 등 건축 특화계획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원과 인접한 단지 북측 지하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단지의 활용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오류동 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오류동 4번지 일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64개소 중 93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93개소 중 현재 ▲정비구역 지정 34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4개소 ▲착공 2개소 등 주거환경 정비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신속통합기획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류동 일대를 매봉산 자락에 둘러싸인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도심의 편리함을 갖춘 숲속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대상지가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9개월 만에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거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주민 숙원을 담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사서 등 103명 신규채용

지방공무원 9급 경쟁임용시험 시행
공개경쟁 62명, 경력경쟁 41명 채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4일 공고를 통해 ‘2025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62명, 경력경쟁 41명으로 총 103명이다. 분야별로 교육행정 52명과 사서 6명 등 행정직군 58명, 공업 5명과 시설관리 40명 등 기술직군 45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8명, 저소득층 2명, 국가유공자 8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7명을 구분 모집한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96명) 응시원서는 오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



서울시교육청 전경

(<https://edurecruit.go.kr>)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6월 21일 시행 후 7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7명)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https://edurecruit.go.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11월 1일 시행 후 11월 14일 합격자 발표

가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이 변경된다. 필기시험 출제 기조 변화에 따라 국어, 영어 과목 시험시간이 각 5분씩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과목 과목별 20문항(100문항) 씩 100분 시험에서 110분으로 변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2024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의 인권 침해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기시험(5과목, 110분 기준)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고, 그 외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 않는 일부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한다. 필기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생활문화 만든다

서울시교육청, 31일까지 한 달간
두근두근 신학기 공익 캠페인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배려하는 관계 형성,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두근두근 신학기’ 캠페인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가나다’ ▲즐거움 학교생활 ‘만나다’ ▲학교 후 건강한 나를 위한 ‘신나다’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가나다’ 캠페인은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라는 교통안전 수칙을 제시해 학생과 운전자 함께 스크론폰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상호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만나다’ 캠페인은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나부터 고운말 쓰기, 다른 의견 귀 기울이기’라는 실천 수칙을 제시한다. ‘신나다’ 캠페인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신선한 바람으로 환기, 나 먼저 손 씻기, 다 함께 마스크로 예방’이라는 깨끗한 생활 습관을 권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캠페인 확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SNS 이벤트,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고용부 사회진출 촉진 사업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최근 채용시장 위축으로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업역량 강화와 원활한 사회 진출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목표다.

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존 일대일 상담, 서류·면접 컨설팅, 취업한 선배의 멘토링 등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더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건설된 트윈 아니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전담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 전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우선·문자로 안내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졸업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 진로·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곽효범 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은 “졸업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부산시, 3612억 추경 편성... 민생안정·지역경제 활력 도모

올해 총 예산 17조442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
복지부문·안전 등에도 투입

부산시가 4일 본예산 16조6830억원 대비 2.2% 증가한 3612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총예산은 17조442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2629억원, 국고보조금 295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직접 추경안을 발표하고 “내수 회복 지원, 고금리 지속, 소비심리 위축,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1187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4만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을 마련해 최대 500만원씩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한다. 이자(최대 6%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시청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월), 연회비, 보증료 없는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당초 4175억원 규모에서 6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을 2배로 확대해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6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입 시 1만원을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환급해 민생경제 활성화

를 도모한다.

시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67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6675억원까지 확대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및 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부산 청년 취업성공패키지(Full)’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

시는 594억원을 복지부문에 투입

한다.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성 미달 지역 도시가스 공급,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부산 남항 서방파에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기반 시설을 확충해 재난 안전망을 강화한다. 부산-마산 스크린도어 교체,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 시설 안전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의 재정 긴축 영향으로 인해 1차 추경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추경을 진행하려고 하는 만큼 6월 2차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표율 60%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교육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임업인 육성 및 산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교육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울진해안레포츨센터에서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교육은 임산물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마련과 울진 임업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임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업인 네트워크 형성, 산림 대전환의 목표에 따라 맞춤형 산림학교의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으로 임업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대한항공 사천~제주 노선 증편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대한항공, 사천~제주 노선이 기존 주 3회에서 주 5회로 2회 증편 운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천공항 이용 환경 개선·기능 재편에 대한 도민 설문 조사 결과, ‘운항횟수 확대’ 의견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도는 사천~제주 노선 증편을 항공사 측과 지속 협의한 결과,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증편은 대한항공의 2023년 10월 사천~제주 노선 복항 이후의 첫 증편이다. 코로나 이후 매년 사천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사천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봄이 오는 3월, 순천으로 오세요”

미식주간, 이달 29일부터 진행
테마투어 이용요금 33% 할인

새롭게 시작된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자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날 계획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꼭 여행 가야 할 ‘순천’을 적극 추천한다.

남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순천은 흥매화의 붉은 물결과 벚꽃의 화사함이 어우러져,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봄의 정취와 좋은 명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계절에서만 특별히 만날 수 있는 풍부한 봄맛과 지역의 특산물을 만끽할 수 있는 ‘순천 미식 주간’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다양한 시식 코너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신선한 순천농산물과 계절 메뉴를 경험하며, 순천 미식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

3월 한 달간, 순천을 각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순천 시티투어 ‘테마투어’ 이용요금이 33%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 성인은 5000원에서 3300원으로 청소년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는 2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된다. 할인 혜택은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결제 시 자동 반영된다.

봄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찍었다면 ‘순천 3초의 매력’ 이벤트를 참여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순천의 봄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3초 내외의 영상 또는 3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3가지 키워드로 표현하여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경품으로 기프트콘, 순천 관광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전남도, 시설원에 14개 사업에 505억 투입

생산기반 확충, 농가 경쟁력 향상

전남도가 올해 시설원에 분야에서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14개 사업에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505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에 현대화 ▲ICT 융복합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원예단지 기반 조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265억을 지원키로 했다.

또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바이오-차 보급,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 지원,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딸기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총 240억 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와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과 스마트팜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혁신 사업 운영을 통해 첨단 농업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해 전남 농업 발전을 견인할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주시,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 추진

현장 실용교육, 이사비 지원 등

경주시가 체계적인 지원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장 실용교육 ▲이사비 및 임시거주지 임차료 등 재정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마을환영행사 등 귀농귀촌 초기 교육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주한 귀농인의 초기 영농실패의 부담을 줄이고자 선도농가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영농기술과 시설관리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관심 있는 분야 작목 재

배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등 현장실습 교육에 5개월 간 참여한 귀농연수생에게는 최대 월 80만 원, 선도농가에게는 최대 월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주농업대학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귀농 귀촌 과정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 치유농업 등 3개 과정을 주 1회(4시간) 운영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귀농인에게 최대 100만 원, 귀촌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귀농인에게 예비 정착지에 대한 일정기간 자료 수집·탐색을 위해 월 15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간 임시거주지 임차비를 제공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경남도, 해수부 ‘청정어장 재생사업’ 선정

고성군 당동만 해역 500ha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2025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고성군 당동만 해역 500ha가 선정돼 2026년까지 대규모 어장 청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모가 시행된 2022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4회 연속 선정돼 창원 진동만, 남해 강진만과 함께 고성 당동만 해역에 사업을 추진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양식 어장과 주변 해역의 바다 밑을 정화해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50억원이

투입된다.

당동만 해역 청정 어장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오염 퇴적물 및 폐기물 제거 ▲양식장 시설 재설치비용 지원 ▲해양환경 진행간관측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청정 어장 관리를 위한 어업인 교육 ▲사업 진단 및 효과 분석 등이다.

고성군 당동만 해역의 장기 연작·폐기물 집적으로 오염이 심화돼 양식생물의 성장이 둔화하고 폐사량이 증가하는 등 어장 생산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 동의를 끌어내 신청했고, 앞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대구국제섬유 박람회’ 열려

2025 대구국제섬유 박람회(Preview In Daegu, 이하 ‘PID’)가 5일부터 사흘동안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전통과 하이테크의 융합을 모티브로 국내외 261개사, 470개 부스 규모로 원사부터 패션 완제품까지 전 스트림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CES 2025 혁신상 수상업체와 함께 ‘지속가능 하이테크관’을 통해 초실감형 패션 3D 디지털화 서비스, AI 패션화보 촬영 솔루션, 나노섬유 세포배양 등 융합 신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섬유패션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부산시 올해 반려견 순찰대 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반려견 순찰대를 지난해 7개 자치구에서 10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키로 하고, 내달 6일까지 순찰대 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202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7개 자치구로 확대돼 238개 팀이 운영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쿠팡 착한상점 누적매출 3조 돌파... 지역·입점사와 '상생'

입점 중소기업인 연매출 3배 ↑
쿠팡Inc 전체 성장률 29% 상회
상품 58만개... 전년비 26% 늘어
지방 농어촌·중소상공인 판로개척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

쿠팡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들의 누적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와 생산인구 감소, 판로채널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어온 전국 중소기업인과 지역 농어촌이 쿠팡을 통해 빠르게 경영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쿠팡은 착한상점 누적 매출이 지난해 말 기준 3조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첫 론칭한 착한 상점은 2023년 말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조원의 추가 매출을 내며 전년 대비 3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들의 한해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지난해 0.

57% 역성장했다(한국신용데이터).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위기 속에 쿠팡 착한상점이 고성장이 가능한 판로를 연 셈이다. 착한상점 중소기업인들의 매출 성장률은 쿠팡Inc의 2024년 전체 성장률(29%, 원화기준)도 크게 상회했다.

착한상점은 지방농어촌과 중소기업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선보인 상설기획관으로 쿠팡은 이들에게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왔다. 김·감·과메기 같은 지역 고유의 특산품부터,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생산시설에서 만든 식품·공산품 등이 총망라돼 있다. 지난해 쿠팡 고객들에 선보인 착한

상점 상품은 58만개로, 2023년(46만개) 대비 26% 늘어났다.

착한상점의 최대 장점은 품질력만 우수하면 지속적으로 상품이 고객들에게 노출되면서 주문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착한상점은 '로켓프레시'나 '로켓배송' 같은 쿠팡의 메인 탭과 함께 쿠팡 앱 메인 화면에서 고객들에게 안내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동남성장위원회를 비롯 24개 기관·지자체와 협업체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테마를 꾸려 특별 할인 기획전을 진행해왔다.

지난해는 충주사과·나주배·김천포도 등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을 대상으

로 한 '지리적표시 특별기획전', 여성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 등의 기획전을 46차례 실시했다. 현재 쿠팡 전체 판매자 중 약 70%는 연 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2250만 명에 달하는 쿠팡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에 기반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들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대형 인기 베스트셀러와 경쟁할 수 있으며, 다른 유통채널에서 노출기회를 받지 못해 낮은 인지도를 쿠팡으로 끌어올리면서 매출과 고용인력이 늘어났다"고 말한다. 쿠팡이 직접 상품을 직매입하는 로켓배송의 경우, 판매·배송·고객 민원 부담을 더는 것도 장점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시작한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들의 매출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립 새 콘셉트 포켓몬빵 '포켓피스 시리즈'

삼립은 새로운 콘셉트의 포켓몬빵 '포켓피스(Poke'peace) 시리즈(사진)'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포켓피스'는 포켓몬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생활하는 공간(셰어하우스)을 테마로, 여유롭게 낮잠을 자거나 특별한 날 파티를 즐기는 포켓몬들의 일상을 담은 새로운 시리즈다. 플레이 세트(장난감)로 먼저 출시돼 문구류·이모티콘 등 다양한 굿즈와 콘텐츠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균형 잡힌 휴식과 여유를 추구하는 라이프 트렌드에 따라 포켓몬빵 '포켓피스 시리즈'를 선보였다.

부드러운 바닐라 크림이 발린 촉촉한 케이크 '화이트 바닐라빈 롤케이크', 당종 기법을 사용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빵에 달콤한 화이트 크림을 넣은 '스윗화이트미니샌드', 바삭한패스츰리에 달콤한 화이트 훈당(설탕물)을 도핑한 '화이트 슈가 패스츰리', 달콤한 초코 빵에 촉촉한 초코칩 앙금을 넣은 '쫄득 초코 쌍둥이' 등 6종이다. /신원선 기자

G마켓·CJ대한통운 '스타배송' 이벤트 16일까지 경품·혜택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CJ대한통운과 함께 '스타배송' 이용 고객을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배송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단독 특가 상품도 제안한다.

스타배송은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구매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해주는 도착보장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는 CJ대한통운의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스타배송 역시 일요일 배송을 시작, 주7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스타배송은 G마켓이 보유한 동탄물류센터에 입고된 14개 카테고리, 약 15만개의 상품에 적용된다.

G마켓은 스타배송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배송은 오네로 오G' 행사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협업 파트너인 CJ대한통운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경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제품을 고르면 추첨을 통해 총 777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으로 '로보락 로봇 청소기',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 등도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롯데디자인즈 유니폼·응원도구·굿즈 선봬

자이언츠와 맞손, 브랜드관 오픈
신규 굿즈 마련, 특별 기획전 계획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 /롯데온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롯데쇼핑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롯데디자인즈와 손잡고 공식 브랜드관을 오픈한다. 롯데온만의 계열사 간 게이트웨이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롯데온은 5일 오후 3시부터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을 마련하고 공식 유니폼을 비롯해 응원도구와 생활잡화 등 주요 굿즈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스포티·캐주얼 라인 의류는 추후 출시된다. 또한 신규 굿즈와 특별 기획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온은 이달 중순 롯데디자인즈,

롯데시네마, 롯데면세점 등 롯데 계열사의 혜택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매장 '엘타운(L.타운)'도 오픈한다.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도 엘타운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앞으로 롯데디자인즈 팬들은 롯데온의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에서 편리하게 자이언츠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롯데온 앱에서 메인 화면의 럭메뉴 롯데디자인즈 로고를 클릭하게

나 '롯데디자인즈'를 검색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월간롯데를 진행하며 다양한 계열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롯데온은 올해도 계열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썩으면 씹어피터진다'를 진행하며 롯데GRS 엔제리너스, 롯데시네마와 협업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했다.

롯데온 시너지마케팅실 김은수 실장은 "올해에도 롯데온만의 게이트웨이 모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준비했다"며 "롯데온의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에서 다양한 굿즈를 편리하게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百, 남성 자동 육아휴직 3개월로 확대

대기업 최초 제도개편 나서

롯데백화점은 4일부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로 2017년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도입하면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 롯데백화점이 그룹에서 처음으로 남

성 자동 육아 휴직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면서, 임직원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녀를 대상으로 양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 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 한다.

롯데백화점의 이번 제도 개편에는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한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누어 지원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百, 봄 맞이 전시·공연 등 마련

'블루밍 플레이리스트' 봄 캠페인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24일까지 '블루밍 플레이리스트(BLOOMING PLAYLIST)' 봄 캠페인을 열고 봄맞이 전시·미디어 아트·공연·제철 식재료 등을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신세계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봄을 알리는 공연인 '신세계 블루밍 콘서트'가 펼쳐진다.

21~24일, 28~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신세계 블루밍 콘서트는 봄꽃이 피어나듯 고객의 마음에 설레고 행복한 순간을 피어나게 하고, 예술적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보인 미니 콘서트이다.

신세계는 올 봄에도 아티스트 임태

현, 장민제, 신의정 등이 펼치는 미니 뮤지컬 콘서트부터 창작 국악, 색소폰 앙상블 등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고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봄맞이 전시와 미디어 아트도 선보인다. 내달 20일까지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Art & Science) 6층 대전신세계 갤러리에서는 따스한 일상의 행복과 반려 동식물과의 교감을 표현한 수채화·관화·일러스트 등의 작품을 소개하는 '투게더(Together)! 슬기로운 반려생활' 전시가 펼쳐진다. 가을, 김서울, 드로잉메리 등 국내 10명의 작가가 봄 일상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풍경과 반려 동식물이 주는 평온함과 교감을 통한 위로를 고객들에게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지배구조 개편 나선다... 미래 경쟁력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승호·이호승 이사선임 안건 상정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결정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사회 개편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이미지

이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잇따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지배구조를 강화하며 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장 먼저 오는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한다.

이번 주총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과 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각각 신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이창우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를 기존대로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다룬다.

유승호 신규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삼성전자 본사 및 프랑스 구주 법인 등에서 경영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는 존립 대표이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고, 이중 3명의 임기 만료일은 이달 21일로 이사회 재편은 예고되어 왔다.

셀트리온은 오는 25일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서정진 회장은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성장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략 수립부터 직접 영업까지 산업 현장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웅은 경영 안정화로 기업 성장에 속도를 낸다. 오는 2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할 대웅은 윤재춘 대웅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박성수 대웅 제약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대웅은 전문경영인의 임기를 '3년+중임'으로 구성된 이상적 경영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대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으로 1999년부터 대웅제약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제약 산업 전문가다. 박성수 대표는 보물리움 특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주도하는 등 대웅제약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한미약품그룹도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윤·중훈 형제 측이 5대 5 동수를 이뤄내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모녀 측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해 한미약품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에는 사보관 사외이사,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등 형제 측 이사진이 사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는 8명이 남으면서 모녀 측이 영향력이 커졌다. 다만 모녀 측 이사진인 신유철(사외이사), 김용덕(사외이사), 곽태선(사외이사) 등 3

명의 임기는 이달 24일 만료된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 10명 중 총 5명의 공백이 생겨 이번 주총에서 대폭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사이언스 정관이 이사회 구성에 대해 3명 이상 10명 이내, 이 중 사외이사는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임시 주총에서 자동 폐기된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선임의 건이 다시 상정될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대표이사 변경도 공시했다. 기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했다.

보령, 대원제약 등 중견 제약사들도 창업주 일가 중심의 경영 승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한다. 보령은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정균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오너 3세인 김정균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원제약도 백조나단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을 의결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2종 美 품목 허가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애포즈마 포함 올해 3건 허가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선점 박차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골 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테노수맷)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오센벨트'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오센벨트는 골전이 암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예방을 비롯해 골거대세포종 등 치료까지 두 제품 모두 각각 오리지널 의약품이 미국에서 보유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국내를 비롯해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스토보클로'

와 '오센벨트' 품목 허가에 속도를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관련 경쟁 제품 중 처음 허가를 획득해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유럽에서도 품목허가를 추가로 승인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종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만 미국에서는 애포즈마를 비롯한 3건의 허가를 획득했다. 유럽에서는 아이덴젤트, 스토보클로, 오센벨트, 애포즈마 등 지난해에만 총 4개 제품의 허가를 추가했다.

셀트리온 측은 "자체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둔 성장 역량을 재입증하고 있다"며 "후속 파이프라인의 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허가 받은 제품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 매출 확대를 이뤄내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비보존제약,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대상'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개발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가 지난 28일 열린 제26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에서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비보존제약

비보존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 혁신 신약 '어나프라주'를 개발한 공로로 제 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신약개발상은 국내 최초의 신약개발 분야 상으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1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38호 국산 신약 '어나프라주'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어나프라주'는 수술 후 중증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에 사용하는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다. 신경전달물질인 글라이신과 세로토닌을 전달하는 수용체들을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다중으로 발생하는 통증의 신호 전달을 차

/이청하 기자

'이문셀엘씨주' 간세포암 재발 위험 68% ↓

지씨셀 임상 유효성 데이터 확인

투여한 환자군을 전체 환자 수의 절반인 49명씩 각각 나눠 비교 분석했다.

지씨셀이 개발한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가 초기 간세포암환자의 재발 위험을 68%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씨셀은 해당 연구 내용이 최근 SCI(과학인용색인)급 국제 저널인 '캔서스'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문셀엘씨주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실제 처방 데이터로 재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근치적 치료(수술 또는 고주파열 치료)를 받은 초기 간세포암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치료만 받은 환자군과 이문셀엘씨주를 추가

투여한 환자군을 전체 환자 수의 절반인 49명씩 각각 나눠 비교 분석했다. 중간관측 기간은 이문셀엘씨주 그룹이 19.1개월, 대조군이 67.7개월이었다. 그 결과, 이문셀엘씨주를 투여한 환자군의 무재발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재발 위험이 68% 감소했다.

전반적 생존율(OS) 분석에서는 두 군 모두 아직 중간값에 도달하지 않아 명확한 비교가 어려웠으나, 치료 후 부작용 발생률이 낮고 3등급 이상의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 이혜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근치적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이문셀엘씨주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롯데리아 '뭇난이 치즈감자' 출시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2025 선순환 프로젝트'를 통한 디저트 신 메뉴 '뭇난이 치즈감자'를 오는 6일 출시한다.

롯데리아는 청년농부가 경작한 감자 활용과 함께 맛과 품질은 우수하나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를 주 원재료로 사용해 디저트 신 메뉴 뭇난이치즈 감자를 개발했다.

내·외부 고객 대상 선호도 조사 시 감자와 치즈 조합에 대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매쉬드 포테이토를 튀긴 감자볼과 체다크림 치즈소스, 옥수수콘의 조합하여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슈크림 페스티벌' 개최

'슈크림 말차 라떼' 신제품 선보

스타벅스는 '슈크림 라떼' 출시를 기념해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멤버십 그린, 골드회원이 스타벅스 카드로 슈크림 라떼 2종 구매 시 한 잔당 별 2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Double Star'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슈크림 페스티벌이 열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스테디 셀러 '슈크림 라떼'와 슈크림 라떼를 말차 버전으로 재해석한 신제품 '슈크림 말차 라떼'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말차와 슈크림이 어우러진 달콤쌉쌀한 맛의 음료로 푸른 새싹을 연상시키는 초록 빛깔 비주얼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HOOKKA HOOKKA STUDIO®

(DESK)

PAPER BOX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한국도요타자동차, '안나의 집' 8000만원 기부

한국도요타자동차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지난 달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 8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한국도요타자동차 이병진 부사장, 안나의 집 김하중 신부, 토요타파이낸셜코리아 정해양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



허윤홍 GS건설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허윤홍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조했다. 허윤홍 대표(오른쪽)가 GS건설 본사 사옥 내 사내어린이집에서 직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건설



카카오임팩트,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워크숍 성료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가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개강워크숍을 마쳤다. 봄학기에는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가을학기에는 카이스트와 가천대학교에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카카오임팩트



종근당고촌재단,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 달 28일 서울 총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신규로 선발된 116명을 포함한 장학생 409명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및 무상기숙사를 지원한다. /종근당고촌재단

BMW 'iX' 美 최고의 전기차 선정

BMW는 순수 전기 SAV 'iX'가 미국 시장조사 기관 J.D. 파워가 발표한 '2025년 미국 전기차 소유 경험 조사'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해 '2025년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됐다. 프리미엄 순수전기 4-도어 쿠페 모델인 BMW i4는 2번째로 높은 점수를 획득해 BMW 전기차가 전체 평가서 1위와 2위를 모두 석권했다.

J.D. 파워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전기차 소유 경험 조사는 전기차 소유자의 처음 1년 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실제 만족도를 평가한다. BMW iX는 이번 조사에서 1000점 만점에 790점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하고 프리미엄 전기차 부문 1위에 올랐다. /이승용 기자

OCI홀딩스, 글로벌 ESG 경영 강화... 안전환경 구축

말레이시아 현지서 나눔 실천
수해복구 지원 등 글로벌 거점 조성

OCI홀딩스가 최근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M의 사명을 OCI TerraSus(테라서스)로 변경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테라서스의 글로벌 핵심 거점인 말레이시아에서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OCI테라서스는 100% 수력발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사용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 중이다. OCI홀딩스와 함께 지난 2월초 사라왁주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에 임직원 100여명이 투입돼 침수된 집을 청소하고 주변



OCI그룹 임직원 100여명이 말레이시아 빈톨루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CI홀딩스

환경정리에 나선 바 있다.

빈톨루 수용소에 대피해 있는 지역민들에게 수건과 부광약품의 칫솔·치약 세트 등 8만 링깃(약 2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고, 인근 학교의 2000여명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빈톨루 생산기지에서 안전의 날 행사인 '세이프티 데이(Safety Day)'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OCI 테라서스의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회사의 안전 문화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

지로 마련됐다.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사는 여러분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서진푸드, 실버 급식사업 본격 추진

시흥시에 대규모 조리시설 구축
'헬씨누리' 통해 메뉴 제조 규격화

CJ프레시웨이는 노인요양시설 이동급식 전문 기업 '서진푸드'와 함께 대형 조리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서진푸드는 수도권 150여 개의 요양시설에 반·완조리된 식사를 이동급식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실버 급식 특화 조리 시설 구축을 통해 식단의 질을 올리고, 건강한 급식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식자재 유통, 위생 및 품질관리, 메뉴 개발 컨설팅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조리시설 공동 운영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



CJ프레시웨이가 서진푸드와 함께 대형 조리시설을 조성했다. /CJ프레시웨이

히하고, 실버 급식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

조리시설은 서진푸드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에 200여 평의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는 식자재 입고, 전처리, 조리, 분류, 포장 등 공정별 공간이 마련됐으며, 대량 조리 가능한 대형 솥, 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주방 기획부터 설계, 기물 도입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헬씨누리'를 통해 메뉴 제조 표준화 및 규격화를 지원한다. 또한, CJ프레시웨이 소속 셰프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상품과 레시피를 서진푸드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서진푸드는 차별화된 어르신 맞춤 메뉴와 레시피 역량을 기반으로 수도권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에 식사를 공급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서진푸드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실버 급식에 최적화된 식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씨누리'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특별 프로모션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누적가입자 300만명 돌파를 기념해 3월 한 달간 '노란우산 3·3·3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프로모션에선 300만 번째 노란우산가입자와 3월 중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한 고객 300명을 추첨해 10만원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노란우산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한 응모자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 경영 위기로부터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퇴직금 제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 복리이자 및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공제금의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볼보그룹코리아, 이명관 영업서비스 총괄 임명

(부사장)

"혁신 제품·서비스로 미래가치 창출"

볼보그룹코리아는 국내영업서비스부문 총괄에 이명관 부사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TG삼보와 후지제폭스를 거쳐 지난 2019년 볼보그룹코리아 국내영업서비스부문 사업운영본부장으로 합류한 이명관 부사장은 재무 성과 관리, 사업 계획 개발 및 예측 분석



등에서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사장은 국내 영업서비스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수익성 개선, 고객 만족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아 볼보그룹코리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볼보그룹코리아 및 볼보그룹아시아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전략 수립과 부문 간 협력 강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고객 만족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볼보그룹코리아 경쟁력 강화와 미래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에쓰오일, 'PSORMS' 도입

(공정 안전·운전 위험관리 솔루션)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강화

에쓰오일이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 안전 및 운전 위험 관리 솔루션(PSORMS)'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PSORMS는 에쓰오일이 온산공장을 스마트 플랜트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통합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의 핵심 솔루션이다. 지난해 5월 공장 운영체계 디지털화 1단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1분기 완료를 목

표로 2단계를 추진 중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PSORMS는 에쓰오일의 안전 경영 철학을 디지털 설루션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기술, 안전 그리고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설루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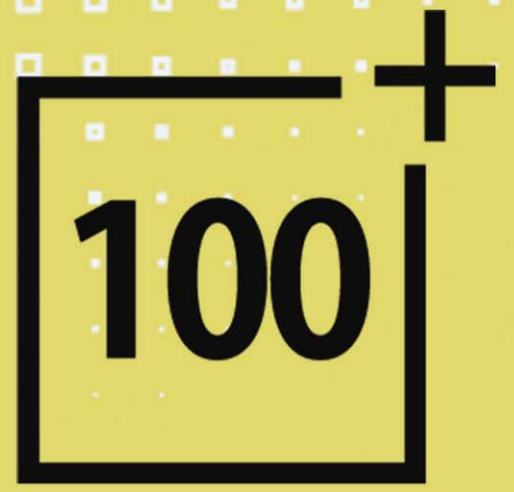
인사

- ◆서울교통공사 △ 기획본부장 한영희
- ◆성신여대 △ 문화산업예술대학원장 이승기
- ◆아시아투데이 △ 편집국 정치부 국방전문기자(국장급) 구필현
- ◆한스경제 △ 정경부 부국장 주진

부음

- ▲ 박계동씨 별세, 박노옥(코스콤 상임감사)씨 부친상 = 3일, 부산 수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6일, 051-853-1024
- ▲ 장노열씨 별세, 서공자씨 남편상, 장지만·장지연·장지영씨 부친상, 신재호(PXG 회장)씨 장인상 = 4일 오전 6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6일, 02-3410-3151
- ▲ 박명환(전 국회의원·전 통일외교통상위원장)씨 별세, 박연신씨 부친상, 박정환씨 형님상 = 4일 오전 7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02-2227-7566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농담'



홍경안 역
시시일각

1993년, 이탈리아의 개념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은 다른 작가의 작품을 통째로 흡수 전시회를 열었다.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선 자신에게 허용된 전시 공간을 향수 광고 에이전시에게 팔아넘기는 기행도 벌였다. 1995년 열린 광주비엔날레에 'Tie'라 명명한 2cm짜리 개미 형상의 조각 한 점을 보낸 건 꽤나 유명하다.

심지어 그는 1999년 돈과 권력으로 물든 비엔날레를 비틀기 위해 가상의 비엔날레인 캐리비안비엔날레를 창설, 크리스 오피리(Chris Ofili),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등의 참여 작가들과 함께 세인트 키츠라는 서인도 제도의 한 섬에서 휴가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펼치기도 했다.

당황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미술계의 악동이라 불리는 카텔란은 새로운 미술사적 의미를 통해 예술의 이상성을 제시하고 미술계를 정복하겠다는 순수한 감정 따윈 일찌감치 내다 버렸다. 차용, 풍

자, 유머를 사용해 기존 가치 체계를 자극하며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 금기시하는 주제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희화화해 거리낌 없이 내놓았다. 이를 달리 말하면 '비판적 유희'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유희'의 대상은 넓다. 정치, 사회, 종교, 미술계를 넘나든다. 일례로 성경에 등장하는 구시(유대인 시간으로 오후 3시)이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선종한 시간을 빚낸 '아홉 번째 시간(La Nona Ora)'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가톨릭교회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요한 바오로 2세)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깔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종교적 권위와 타락, 인간의 취약성을 꼬집는 조각으로, 1999년 쿤스트 할레 바젤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2023년 리움미술관 전시에도 출품됐다.

일주일이면 써어 없어질 허상의 기호로 바나나 한 개를 벽에 덕트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게 전부인 '코미디언(Comedian)'(2019)은 동시대 미술 시장의 투기적 성격과 비합리성을 지적한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1000원 남짓할 바나나 한 개가 처음엔 1억원을 웃돌더니 2024년엔 86억원에 거래되는 미술 시장 자체가 그에겐 코미디 같은 현실인 셈이다.

조롱에 가까운 카텔란식 어법은 '아메리카(America)'(2011)라는 제목의 작품에서도 동일하다. 그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인 '변기'를 18K 금으로 만들어 2016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화장실에 설치했다. 총 103kg의 금이 사용돼 일명 '황금 변기'로 통한다. 2019년 영국 블레넬 궁전 전시 중 도난을 당하면서 더욱 화제가 된 작품이다.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아메리카'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극단적인 부와 사회적 불평등, 예술의 가치에 대해 질문한다. 예술이든 인간관계든 그저 돈이 우선인 현실과 소수의 권력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뒷과 기회까지 모두 쥔 채 사회적 자본마저 세습하는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부의 불균형과 자본의 다소가 곧 계급이자 미래의 자리까지 결정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서 곱씹게 되는 작품이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술의 민주화라는 측면도 엿볼 수 있다. 특히 한 끼 식사로 10만원 짜리 호텔 뷔페를 먹건, 몇 천원짜리 김밥 한 줄을 먹건, 배설은 동일하다는 사실은 카텔란식 풍자의 정점이다. /미술평론가

이제 보수라는 이름은 어디로



기저 수첩
서예진 (정치경제부)

보수(保守), 정치 용어로 쓰일 때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점진적 변화를 꾀한다는 표현이다. 한자의 뜻을 풀이해도 보전할 보(保)에 지킬 수(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혁(保革·보수개혁)을 가르는 기준은 체제 변화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반공(反共)이었다는 게 정치사의 비극이라면 비극이다.

그간 '자·타칭' 한국의 보수라고 분류되던 정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반공을 내세웠다. 이들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대 정파를 짓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2025년 현재도 마찬가지다. 반공을 초석으로 쌓아 각자도생을 새긴 집에 민족주의는 흔적조차 없다. 각자도생에 충실하기에, 이들이 한때 언급한 '따뜻한 보수'는 허상인 셈이다.

그들이 그렇게도 외치는 질서 유지가 이 집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외주를 줬으니까. 질서 유지는 87년 체제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였던 평범한 국민들의 몫이었으니.

이들은 여전히 반공을 무기로 자신의 지지층을 자극한다.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쯤 됐고,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지 80년이 되어가는 데도.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이들의 이념적 무기기가 빈약함을 방증했다.

하지만 80년간 '반공 원통'로 움직였던 이 집단이, 이제 드디어 보수라는 이름을 반납하려나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명징해졌다. 탄핵심판을 지켜본 국민들은 비상계엄의 주동자들이 영화 '서울의 봄'을 2024년 12월에 재현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아니, 이미 2024년 12월3일에 본능적으로 느꼈기에 분노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의 주동자들은 2025년에도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이 논리가 먹히는 극우 지지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문제다. 보수정당이라 주장하는 집단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을 일삼으며 이들에게 구애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백골단도 등장했다. 법 체제상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헌법임에도, 이들은 헌법 위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나라의 근간인 헌법마저 부정하는 걸 보니, 드디어 보수라는 이름과 헤어질 결심이 섰나 싶다. 앞으로 다가올 보수 재편의 역사를 위해, 건투를 빌겠다.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5일 (음 2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다. 48년생 눈치보다는 소신대로. 6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수 있다. 72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84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



37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줘서라도 달래야 한다. 49년생 차량정비 하는 날. 6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걸. 7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85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38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50년생 오죽하면 삼재 팔란 관 재구설이라 했겠는가. 62년생 가까운 사람부터 신용을 쌓아가자. 74년생 고생은 많고 실속은 적고. 86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과 비벌 언덕이 절실.



39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1년생 지나친 관심은 나도 상대도 지치게 한다. 63년생 인색하면 고독이 계속된다. 75년생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87년생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잘해야 열매를 가지 못한다.



40년생 허투르가져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 낭패 본다. 52년생 시험합격의 기쁨이 있다. 64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76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88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41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현명. 53년생 초조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라. 65년생 자신을 이겨야만 발전도 있다. 7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니 좋은 하루. 89년생 붉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42년생 생선이 먹고 싶다면 물고를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라. 54년생 가까운 사람과 불화를 조심. 66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8년생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챙기다 왕따. 90년생 망설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과감히 도전.



43년생 주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신용을 지켜라. 55년생 남자 친구의 기대가 부담. 6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79년생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너무 짧다. 91년생 시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44년생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56년생 양보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68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기본. 80년생 제3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9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45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57년생 본인의 거짓말로 결국은 사면초가(四面楚歌)된다. 69년생 마음을 비우고 그냥 웃으며 살자. 8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경사가 꽃핀다. 9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마라.



46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5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70년생 지지치 않기 위해 명상을 해보라. 82년생 이익 앞에서는 감탄고도(甘탄苦道)가 될 수 밖에 없으니 누구를 탓하라. 94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은 하루.



47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될 듯이 기쁘다. 59년생 큰 업체에서 일거리가 들어온다. 71년생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 83년생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라. 95년생 반려 아가들을 때리려면 귀뚜자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김상회의四季 주식의 유래

주식 투자는 항상 희비의 쌍곡선을 그린다. 어느 종목에 언제 투자했는지에 따라 누구는 큰돈을 얻고 누구는 큰돈을 잃는다. 투자와 손실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매수했어도 언제 어느 가격에 매도했느냐에 따라 수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매일 같이 울고 웃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투자자를 웃게 하고 울게 만드는 주식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현대의 주식회사와 같은 구조는 네덜란드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1602년에 설립된 동인도 회사를 그 시작으로 본다. 당시는 대항해시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아시아 등으로 무역선을 보냈다.

한 번 항해를 갔다 오면 큰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역에 투자했다. 투자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 항해에 나섰던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일도 잦았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개인이나 회사들이 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함께 투자했다. 수익이 생기면 출자금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 받고, 손해가 생기면 출자금만큼 손실 보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투자한 만큼 받았던 지분이 근대적인 주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런 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형태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최초의 주식회사다.

당시의 주식은 개인의 분산 출자와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기본 개념이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분 자체를 상품처럼 거래한 것이 현대와 같은 주식 투자의 출발점이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도 발행했는데 1606년에 발행된 것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주식이다. 주식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http://www.argo9.com

8	2	3			9
	5		6		
3	9				6
6		8	7		
		6	5		
	3	1			6
	8		4	7	
		5		3	
2			4	1	8

1	5	8			4
		5			
	9		2	6	
		7		8	2
	7		7		3
6	2		5		
		3	4		7
				5	
5			6	4	8

8	1	9	7	6	4	9	8	2
2	8	6	8	9	1	7	9	4
4	9	7	9	8	2	1	8	6
9	8	2	1	7	8	6	9	
8	6	1	9	2	9	8	4	7
9	7	4	8	6	2	1	9	
1	9	8	2	9	6	7	8	
7	2	8	6	9	8	4	9	1
6	4	9	1	7	8	9	2	8

8	2	7	9	6	8	1	9	4
6	9	8	9	1	4	2	8	7
9	4	1	8	7	2	8	9	6
7	1	4	8	6	8	2	9	
9	8	6	2	8	1	7	4	9
2	8	9	7	4	9	6	1	8
8	9	1	2	7	4	6	8	
1	6	8	2	8	9	7	4	9
4	7	2	6	9	8	9	8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2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카톡 선물하기' 가맹점주 부담 뚝 수수료 낮추고, 정산주기 1개월로

공정위,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
카톡 선물하기 수수료 14%→8%
정산주기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 인하와 모바일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함께 상생 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3월 4~14일(1차)과 17~31일(2차)로 나눠 받은 뒤 이후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 가맹브랜드 상생방안은 19일부터 시작된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4%였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 대

상 가맹본부는 8% 이상 수수료를 적용 받는 곳이다. 단,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전달되도록 한 상생방안 취지를 고려해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 50% 이상을 부담하고 8%로 수수료를 인하한 후에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추가로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6월까지 상생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7월1일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약 3개월 시범 기간을 합하면 3년으로 정한 상생방안의 실제 효과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산주기 단축신청 대상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11번가, 즐거운, 쿠프 마케팅, KT알파 등 4개사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다. 4개사 외에도 발행사인 섹타나인은 그룹사인 SPC 소속 2개 가맹브랜드(파스쿠찌, 잠바주스)의 정산주기를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온실가스 감축 타당성조사 지원 대폭 확대

산업부-코트라, 오늘부터 신청 접수
77억 투입... 기업 부담 줄어듦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부터 '2025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이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 및 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2025년도 공모사업을 전년 대비 ▲지원 규모 및 한도 확대 ▲접수 시기 증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 제도를 개편해 보다 많은 감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발전 부문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수탁기관인 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3년부터 2년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중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공정개선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해 총 3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총 규모

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7억원이다.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해 더 많은 사업을 적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본 타당성 조사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비율도 80%에서 90%로 높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국제감축사업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본 타당성 조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은 월별 마감 후 평가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중간 점검과 사업 완료 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해외박람회서 농기자재 수출 지원

해외 농업박람회 5곳서 한국관 운영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5개 해외도시에서 예정된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K-농기자재 수출 확대에 나선다.

농어촌공사는 이달 12일 열리는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해외 농업박람회 5곳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국내기업 28곳과 함께 아시아시장 개척에 나선다. 1만5000명이상이 방문하는 '2025년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와 20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농업박람회인 '2025년 중국 국제 농화학·작물보호 박람회(CAC 2025)'에 참가한다.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 ▲독일 농기계 박람회 ▲튀르키예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조성한다.

농어촌공사는 국내기업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74개 기업과 함께 농기계,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비료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인 결과, 974건·1억1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낸 바 있다.

공사는 한국관 조성에 더해,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부스별 전문 통역사, 바이어 매칭, 국가별 최신 시장 분석과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 국가승인통계 4년간 '최우수'

인력 정책수립 기초자료 등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통계'가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우수)을 획득했다.

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는 2024년 기준 777종의 국가승인통계 품질을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국가기술자격통계는 '자격기본법'

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정보를 정리한 통계로, 공단은 1984년부터 매년 응시, 합격자 등 통계를 작성·보급해왔다.

2023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로 발간해 정부와 지자체 인력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전 국민 진로 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연구 논문 공모

학술지 게재, 원고료 최대 2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논문 원고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

문은 학술지 '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 발간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 공직자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귀농 이유 '자연'... 5년차 연소득 3621만원

농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을 택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절반이 자연환경(31.9%) 또는 가업승계(20.0%)를 꼽았다. 귀농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9.8%) 순이었다.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19.0%) 순이었다. 하지만 청년층에선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0.5%)을 꼽은 비중이 가장 컸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 원, 귀촌가구는 4154만 원이

었다. 귀농 첫해 가구소득(2763만 원), 귀촌 첫해(3757만 원)에 비해 각각 31.1%,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5083만 원)의 71% 수준이지만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평균 농가(1114만 원)보다 오히려 43.6% 높았다. 특히, 귀농교육을 이수한 농가의 농업소득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높아 교육이 귀농 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8 | 해질 / 18:30

3월 5일 (수) 음력: 2월 6일

수도권 날씨 0 ~ 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9, 동두천 -2/9, 파주 -3/9, 가평 -2/8, 서울 0/9, 양평 -2/9, 인천 0/9, 수원 0/9, 용인 0/9, 평택 -1/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 美농산품에 10일부터 10~15% 보복관세... 트럼프에 '맞붙'
▲호주 총리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 고려" /사진 뉴시스

▲트럼프 "TSMC,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공식 발표
▲BYD의 거침없는 진격... "차에 드론 탑재"+8조 원 조달

▲'친러' 미얀마 군정 수장 모스크바행... 푸틴과 회담 예정
▲절망 내몰린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막은 이스라엘에 국제사회 비판 쇄도



쿠팡 착한상점
입점사 누적매출
3조 넘었다
L1



Life

제약·바이오업계
지배구조 개편
경쟁력 확보
L2



“감세정책·규제완화 ‘긍정 신호’... 美 증시, 더 건강해 질 것”

속깊은 인터뷰

이춘광 레그넘투자자문 대표

2024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서학개미’ 그리고 ‘투자이민’이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개인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나 ‘미장’으로 너도나도 투자이민을 떠났다.

지난해 뉴욕 증시는 뜨거운 랠리로 이민자들의 갈증을 충족하게 채웠다. S&P500 지수는 한해 23%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2023년부터 2년간 상승률은 53%에 달한다. 지난해 나스닥과 다우 지수도 각각 29%, 13%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9.6%를 기록했다.

2025년, 투자자들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오를 대로 오른 미장에 있자니 불안하고, 국장으로 돌아오자니 믿을만한 호재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정책 변화는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과연, 미국 증시는 더 오를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이춘광 레그넘투자자문(이하 레그넘) 대표를 1년만에 다시 찾았다.

레그넘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하는 펀드다. 수치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주식, 채권 뿐 아니라 통화, 부동산,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9개 다양한 자산으로 ▲글로벌 혁신테마형 ▲글로벌 자산배분형 ▲글로벌 혁신 주식형 ▲글로벌 리츠형 ▲글로벌 안정형 등 테마에 따라 4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지난해 초 이춘광 대표는 “2024년 미국 증시는 조금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 밖에는 답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레그넘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는 31.73%의 수익을 냈다. 지난 2022년 1월 설정 이후 3년간의 수익률은 71.34%에 달한다.

다시 만난 이 대표는 “올해 미국 시장은 체질적으로 더욱 젊고 건강해지는, 소위 ‘벤자민 버튼의 경제’가 될 것”이라며 “연초 관세 이슈 등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 트럼프 행정부 2기, 어떻게 예상하나.
“1기 때보다도 좋을 것으로 본다. 실물경제를 자본시장이 반영한다고 보다면, 트럼프 2기는 경제 펀더멘털, 더 나아가 미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



이춘광 레그넘투자자문 대표가 서울 강남구 소재 레그넘투자자문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25년 자산운용 경력 ‘미국 전문가’ 정책변화 커진 올해 美 증시 예측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등 ‘청신호’ 트럼프 2기, 경제 체질개선 이룰 것

동안의 공백기를 거치며 공부를 많이 했고 1기 때보다 더욱 탄탄한 인맥을 쌓았다. 특히, 이번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취할거라고 본다. 트럼프를 극단적이라고 비판하고 폄하하는 말이 많지만, 실제 트럼프의 정책은 매우 합리적이고 아카데미적이다.”

- 트럼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2021년 미국에서 발표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은 도로, 공공건물 등 낙후된 인프라를 보수하고 다양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법이다. IIJA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했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준비한 법이다. 해외 진출한 기업과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역시 트럼프의 작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미국을 바로 세우고 강건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긍정적인가.

“우선 감세 정책이다. 트럼프 2기의 공약 중 하나가 1기에 25%로 낮춘 법인세를 다시 15%로 인하하겠다는 것이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감세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기 시행했던 감세법(TCJA)은 2기까지 연장이 결정됐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가 규제 완화 부분이다. 트럼프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이제까지 계류 또는 검토 중이던 쓸데 없는 규제들을 전부 없애겠다고 밝혔다. 방만 경영을 통해 빠져나가던 재정 지출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을 더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 대표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북미지역학 석사를 받은 ‘미국 전문가’다. 알리안츠와 JP모건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기업의 자산운용역을 거치며 25년간 쌓은 경험을 더해, 심도 깊은 거시 분석을 통한 근거있는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3년, 미국에 극심한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던 2022년 4분기, 레그넘은 줄곧 “2023년 미국에는 골디락스(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상승이 없는 상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았다. 2023년 미국은 근 20년 만에 3%대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인플레이션도 막아냈다.

- 버블 우려가 계속된다.

“미국이 지난 2년간 많이 상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버블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주가는 분명 오를만 하기 때문에 올랐다. 지난 2년간 미국 경제 체질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적당한 감속을 통해 적절한 성장 강도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체질적으로 더욱 견실

美 중소기업 경기지수 최고수준 경제 활성화, 재정 안정화로 견고

관세정책에도 우상향 변함없을 것 분산·배분 전략 포트폴리오 중요

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 경기는 여전히 낙관적인가.

“미국 중소기업 경기지수(NFIB)가 최근 82%에서 105% 까지 늘면서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물론 그 아래 자영업자들까지 성장세가 번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가 경기에 가장 민감한, 끝 단에 있는 자영업자까지 내려간 것이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4% 이하인 완전 고용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정책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재정도 안정화 되면 미국 경제는 더욱 견고하고 건강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동안 미국 경제가 늘어 있었다면 올해는 젊은 시절로 회춘하는 소위 ‘벤자민 버튼의 경제’가 될 것이다.”

- 위험 요소는 없나.

“굳이 꼽자면 물가상승 압력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임팩트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문제가 잠재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비싸졌다는 것. 이러한 이유들로 증시에 적당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일시적인 조정은 좋은 저가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레그넘은 철저한 ‘톱다운(Top-Down)’ 방식을 고수한다. 시장이 오를 때 치고 나가진 않지만, 하락장에 탄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고집스레 지켜가고 있다.

지난해 레그넘이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배분형(31.73%) ▲글로벌 혁신 주식형(27.98%) ▲글로벌 리츠형(20.92%) ▲글로벌 안정형(22.96%) 등 4개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25.89%를 기록했다.

특히 빅테크주가 포함된 ‘글로벌 혁신 주식형’의 경우, 엔비디아를 필두로 지난해 인공지능(AI) 테마로 미국 증시를 견인한 소위 ‘M7’의 비중이 13%로 적은 편이다. 대신 AI 성장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다양한 업종들로 분산 투자한다.

이 대표는 “상승장에서 2등하고, 하락장에서는 꼴등을 하는 것은 절대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다”라는 말을 늘 강조한다. 실제로, 전 세계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 레그넘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는 거의 유일하게 10.92%의 수익률을 지켜냈다.

그는 올해 미국 증시는 한 업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업종이 함께 오르는 ‘건강한’ 장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레그넘이 고집스레 지켜온 투자 전략도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 미국 증시는 올해 더 오르나.

“우상향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지난 2년간 M7가 증시를 끌어왔다면 올해부터 그런 시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올해 들어 빅테크 업종은 지지부진 하지만, 그 외 금융, 에너지, 통신, 서비스, 소재 등 업종이 더 오르며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5년 미국 증시는 M7와 같은 특정 업종에 흔들리는 시장이 아닌 훨씬 탄탄하고 건강한 상승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빅테크 테마는 끝난건가.

“엔비디아는 2년간 700%나 올랐다.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감속을 하는 게 당연하다. 분기별로 500% 가까이 올랐던 주당순이익(EPS) 성장률도 현재는 100%로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 상승세가 줄어드는 것일 뿐 빠질 것이라 걱정은 이르다. 주가는 점차 감속하며 오를 것으로 본다.”

-올해 투자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

“그동안 테크주에 ‘몰빵’했다면 올해부터는 분산, 배분 전략을 써야한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더 많은 업종들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양한 자산에 배분하고, 업종과 종목에 분산해 시장 하락에도 대응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대만골프투어 개막전 우승’ 황유민, 세계랭킹 13계단 상승 /사진 뉴스시
▲광주FC, 일본 강호 ‘고베’ 잡고 ACLE 8강행 정조준

▲조정은·차지연·박은태·최재림, ‘매디슨카운티의 다리’ 캐스팅
▲‘퇴마록’ 원조 K오컬트 붐...누적 30만 돌파 입소문 흥행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누적 관객수 130만 돌파
▲‘최강야구4’ 트라이아웃 강행...JTBC와 갈등 지속